

인천시가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만들어 갑니다

너와 나의 줄을 이으면
소통이 되고
소통의 실타래를 풀면
화합이 됩니다
소통과 화합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소통, 따뜻한 화합 with 인천광역시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1 / 2

더불어 인천 인천 해광학교 오케스트라
공감 인천 한옥스테이
Tradition 위대한 유산, 할머니 손맛
Incheoner 심은미술관 전정우 관장
Old But New 중앙시장과 송현시장 주변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1년 2월 10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윤관석
편집장	유동현(뉴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윤남 twitter.com/yo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성 · 홍승훈 · 정정호(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코인뱅크 T. 032-831-2336
인쇄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over Story

솟대
 천둥을 지배하는 천둥새로, 비를 가져다 주는 농경신으로 솟대를 세우면서, 조상들은 이웃의 평안과 행복을 빌었다. 함께 하는 마음, 열린 생각, 서로 맞잡은 손. 솟대를 바라보는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조상들은 지금도 바라지 않을까.

_ 강희도, 「남취당의 한옥이야기」, 소재



04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06 **더불어 인천** 인천 해광학교 오케스트라

10 **포커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송도국제도시 소개

12 **공감 인천** 한옥스테이

16 **Tradition** 위대한 유산, 할머니 손맛

20 **당신을 지원합니다** 인천전직지원센터

22 **2014 인천AG** 베트남 호치민시

26 **Incheoner** 심은미술관 정전주 관장

30 **Culture News** 문화뉴스

31 **Calendar** 이달의 공연 · 전시

32 **Old But New** 중암시장과 송현시장 주변

36 **이웃 사람과 사람** 장희순 · 정고은

38 **Civic News** 시정뉴스

42 **Council News** 의정뉴스

46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생활의 발견, 전화기

48 **외국인 칼럼** 브레들리 엘리스 경인여대 교수

49 **모닝커피 한잔**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50 **건강백세** 구강 관리

51 **착한가게** ‘나눔이 착!’

52 **Infobox** 생활정보

56 **Spot the Difference** 틀린그림 찾기

57 **Reader’s Photo** 김치찰kak

58 **News Plus+** 셋째 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59 **사소한 발견** 행복한 대문

06 **더불어 인천 | 인천 해광학교 오케스트라** **눈 감으면, 희망이 들려요**

오랜 시간 연주자세를 익히고 악보를 하나하나 외우는 노력 끝에 이루어 낸 음악.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빛어낸 아름다운 선율이, 희망의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히 뿌려진다.

16 **Tradition | 인천의 맛** **위대한 유산, 할머니 손맛**

할머니의 손끝에서 맛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 어려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할머니의 손끝하나 믿고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인천의 역사가 되고, 맛이 되었다.

32 **Old But New | 중암시장과 송현시장 주변** **그들이 사고파는 것은 ‘추억’이다**

양키시장 가게 진열대에 놓여있는 허쉬 초콜릿과 코티 분에 쌓이는 것은 먼지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과거’가 그 위에 쌓인다. 그들이 파는 것은 이제 양키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2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과 무상급식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시급한 건 교육비 문제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_ 강미석 계양구 작전동

<굿모닝인천>의 팬이 되었어요

간석3동 주민센터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굿모닝인천>을 처음 접했습니다. 유익한 기사가 많더라고요. 인천시민으로서 참 고마웠습니다. <굿모닝인천>의 열혈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인천시민에 유익한 소식을 많이 알려주세요. 또 편지할게요.

_ 정순애 남동구 간석3동

언제나 그리운 인천

5년 전 인천에서 의정부로 이사왔습니다. 언젠가 인천에서 사귀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굿모닝인천>을 아느냐고 묻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지난 1월호부터 구독해 보고 있습니다. 내 고향 인천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_ 김순만 의정부시 신곡1동

<굿모닝인천>을 단행본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인천의 역사와 숨은 명소, 자랑거리를 찾아 <굿모닝인천>에 매달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 이야기를 한데 묶어 책자를 내면 어떨까요. 아시아경기대회도 4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인천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나눠주면 인천을 홍보하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찾지 않을까요?

_ 한선희 동구 화수2동

희망인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한파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고가 한층 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전에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정책을 펴면 합니다. 목표점에 한발 늦게 도달하더라도 함께 가는 길이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_ 이현정 남동구 구월3동

와우! 송도 멋져요

얼마 전 직장이 송도신도시로 이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송도인가 생각했었는데, 송도의 입구에 다다르니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와~! 이런 곳이 있었네" 서울에서만 보던 아니 서울보다 더 멋진 곳이 인천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잘 정비된 도로, 멋진 건물들. 송도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_ 박찬용 시흥시 하중동

사진을 공부하는 만학도입니다

뒤늦게 취미로 시작한 사진에 푹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 잡지를 뒤적이다 우연히 발견한 <굿모닝인천>, 그 속에 게재된 사진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흥내내며 찍어보는데 잘되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도움은 됩니다. 1월호 기사 중에는 말레이시아 사진이 좋았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가슴에 팍팍~ _ 이승원 연수구 송도동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는~

은행에 들렀다가 우연히 집어 든 <굿모닝인천>. 사실 인천에 여러 해 살았지만, <굿모닝인천>을 제대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내용을 읽다보니 내 순번도 그냥 지나쳐 화들짝 놀라 창구로 뛰어갔답니다. 신청하면 집으로 배달도 해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신청합니다.

_ 민경자 남동구 논현동

정감이 있는 잡지네요

무엇보다 훈훈한 기사들이 마음에 듭니다. 서민의 삶과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옛 기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내용들인데, 독자들에게 읽기 좋게 담아내는 기술이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_ 남경민 시흥시 월곶동

인천시 신입 시민입니다

인천에 새보금자리를 잡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 인천시민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우연히 보게 된 굿모닝인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인천지역의 옛모습, 현재의 모습까지 리얼하게 담아낸 <굿모닝인천> 때문에 이 곳이 낯설지 않아졌어요.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기사 많이 담아주세요.

_ 김금자 남동구 논현동



시민이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시장님, 청라지구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국제업무타운, 시티타워 등 주요 핵심 사업의 착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LH 측에 조속히 사업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올해 국제업무타운 착공을 비롯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bulloger 연수구 연수동 연수4단지 합박마을에 주차 단속 좀 해주세요. 버스가 못 지나갈 정도로 심각해요.

해당지역에 대해 관할 연수구 주차단속 부서에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지역을 단속 집중지역으로 정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bulloger 지역아동센터 직원입니다. 정당치 않은 평가를 거부하다 운영비를 50% 밖에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책이 없는 건가요?

우리시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순수 시비로 교구·교재비, 난방비, 처우개선비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후원기업 및 사회단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유은미(당시 만 34세, 여)
발생일자 2004년 6월 22일(화)
발생장소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신체특징 정신지체2급,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력 있음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눈 감으면, 희망이 들려요

볼 수 없다고 해서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 해광학교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오랜 시간 연주자세를 익히고 악보를 하나하나 외우는 노력 끝에 이루어 낸 음악.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빚어낸 아름다운 선율이, 희망의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히 뿌려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소리로 세상을 보다

남자가 태어나서 ‘빛’을 본 건 고작 보름뿐이었다. 원인 모를 열병으로 시력을 잃은 후 줄곧 어둠 속을 살았다. 그런 그에게 음악은 희망이었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투스 틸레망(Toots Thielemans)’의 연주가 그의 심장을 삼켜버렸고 이후 피나는 노력으로 하모니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바로 전제덕,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재즈하모니카 연주자다. 음악과의 첫 만남은 그가 인천 해광학교에 입학한 일곱 살 어린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학교 관악대에서 북을 두드리고 사물놀이패에서 장구를 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다. 지금도 해광학교에는 수많은 제2의 전제덕이 아름다운 선율로 세상과 소통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인천 해광학교는 특별하다. 학생 모두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1인 1악기’ 교육을 펴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방과후 특기적성과 특별활동 시간에 악기를 가르치고 정기적으로 음악발표회를 열어 아이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해광학교의 아이들은 마음이 맑고 순수하며 세상을 향한 당당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해광학교 출신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세상은 그를 시각장애인이 아닌 ‘뮤지션’이라 부른다.



파란 꿈을 꾸는 아이들

해광학교 음악캠프를 찾은 날, 멀리서부터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의 맑은 영혼이 담긴 음악이 공기를 타고 귀로 스며들어 마음을 파스히 물들인다.

교실에서는 미래의 음악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악기를 연주하느라 여념이 없다. 문다솔(17) 양은 초등학생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해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연주하고 있다. 유모레스크의 경쾌한 리듬이 소녀의 작고 귀여운 손끝을 타고 한 송이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난다. 가끔 음이 어긋나기는 하지만 마음이나 표정만큼은 전문 음악가 못지않게 진지하다. 옆에서 지켜보는 황수진 음악교사는 그런 다솔 양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 “들은 것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아이예요. 음악을 깊이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선율을 타고 자연스럽게 흐른답니다. 그만큼 음악을 할 때 아이의 표정은 꿈꾸듯 참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요.”

악기를 다루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하물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다. 오랜시간 연주자세를 몸으로 익히고 정확한 음을 내는 악기 위치를 파악해야 하며 악보를 눈이 아닌 손으로 읽어야 하기에 아예 통째로 외워야 한다. 모두 ‘볼 수 없기에’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해서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광학교 아이들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열린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빛나는 내일을 그리고 있다.

그들의 연주는 음악, 그 이상

드디어 음악발표회 날. 지난달 21일, 해광학교 학생 70여 명이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 삼애관 무대에 올랐다. 이날 연주회에는 인천시립 교향악단의 부지휘자인 이경구씨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인천시향 단원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뤘다.

하나 둘 셋. 지휘자가 작은 소리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자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정경이 흐른다. 악보도 없이 소리와 느낌으로 만들어 내는 화음이 연주회장엔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 때론 음이 틀리고 박자가 맞지 않았지만 단원들은 지휘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료들과 호흡하며 열성으로 연주를 이끌었다. 이어 마지막 곡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서곡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들이 연주한 건 음악, 그 이상이였다.

‘나는 할 수 있다(I Can Do Anything)’ 해광학교 학생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신념이다.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빚어낸 아름다운 선율이, 희망의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히 뿌려 진다.



인천 해광학교 오케스트라 4년 뒤, 아시아경기대회 무대에서 만나요

“인천 해광학교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음악을 연주했다. 감동적이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전율할 정도의 감동이 느껴진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해 인천 해광학교를 방문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듯 해광학교 학생들은 눈 대신 소리와 몸짓으로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며 세상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다. 학교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활성화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열리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개막식 행사에서 연주하고, 더 멀리 외국 순회공연을 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 꿈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해광학교 명선목 교장은 “시각장애인은 악기 특히 현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옳았다”며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더 불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마음이 나마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의 : 인천 해광학교 522-8345





‘글로벌 친환경’에 세계가 반하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세계가 인정한 도시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개발속도와 인프라구축이 가장 빠른 송도국제도시시는 환경과 기술이 결합된 미래도시의 모델로 세계의 언론이 극찬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송도국제도시가 환경과 기술을 결합한 전 세계 5대 미래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인터넷판에서 송도국제도시와 미국 포틀랜드, 영국 코번트리, 콜롬비아 메델린, 프랑스 니스 등을 새로운 사고와 대담한 접근방식으로 도시 기반시설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킨 도시로 부각했고, 송도국제도시를 그 첫번째에 게재했다.

가디언지가 세계 미래도시의 모범으로 송도를 꼽은 이유는 유럽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 최첨단 IT환경이 구현되고 있는 점이다. 가디언은 송도국제도시가 최첨단으로 무장한 유비쿼터스가 실현되는 도시로 교통체증이 없으며, 에어컨, 난방과 조명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끄거나 켤 수 있을 정도로 IT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모든 아파트에 영상회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거주자들이 하루 에너지 소비량을 추적할 수 있는 녹색미터기가 구축되는 등 미래를 내다본 특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시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건설했고, 6만 5천명의 인구와 30만의 통근자가 생활하는 스마트한 삶이 실현되는 곳이 될 것임을 예견했다. 모든 건물은 엄격한 환경기준에 의해 지어지며 정화처리로 재이용될 중수도 용수와 빗물은 따로 모아두는 등 글로벌 친환경 도시라고 덧붙였다. 또 친환경, 첨단도시답게 에너지절약의 조치로 LED조명, 연료전지 버스, 전기차 충전소 등이 조성돼 공해와 매연이 없는 맑고 깨끗한 에코시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텐게일 게일 인터내셔널 사장은 “성공하는 미래도시의 열쇠는 환경”이라고 말하고 “동북아 경제허브를 추구하는 송도국제도시시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미래도시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

우리시는 국내 최초로 시행된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을 지난 2009년 마치고,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의 주된 방향은 활발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인재가 모이고, 관광을 활성화해 세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2단계 사업 기간엔 기업 1천209개소, 연구소 등 1천 318개, FDI 81억천만 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투자유치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돕고, 중국, 중동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투자자민제와 관련 대 중국 IR과 중국인 투자가 전용 호텔 상품개발이 추진되며, 송도 6·8공구의 매립이 완료되는 한편 ‘에너지-세이빙’의 친환경 저탄소형 녹색 모범도시가 구현된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글로벌기업의 인천 유치다. 글로벌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를 비롯해 세계적인 기업인 시스코, 오티스, 3M을 인천으로 유치하고, 2013년에는 국제병원, 해외대학 등의 시설과 스타과학자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인재의 집결지로 변신한다. 글로벌대학 캠퍼스, 국제화복합단지, 국제학교 등을 세워 전 세계인이 송도로 유학오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세계인과 어울리는 세계 속의 인천으로 성장한다. 국제무대에 맞는 인프라 구축은 국내외 석학들도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이룩하는 장소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닿을 듯 말 듯... 한옥에서의 하룻밤

밤이 깊어가고 뜨끈한 구들장에 등을 대고 잠자리에 든다. 부드러운 달빛이 종이 바른 창을 지나 방안 가득 은은하게 들어온다. 나무 타는 냄새가 그윽이 밀려온다. 바람결 따라 청아하게 울리는 풍경소리가 귓가를 조용히 두드린다. 한옥에서의 하루, 그날 밤 비단금침이 아니어도 잠은 깊고 달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故

그리운 옛 풍경 찾아

겨울 한가운데, 따스함이 그리고 자연이 그리워 수더분한 땅빛 좇아 강화로 간다. 강화도 초지대교 지나 함허동천 길목에서 작은 다리를 건너면 아담한 한옥이 수줍은 듯 모습을 드러낸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 더디고 정묵한 옛 풍경이 오롯하다. 예서라면 세상사 잠시 잊고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일 수 있으리라.

‘남취당의 한옥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옥 게스트하우스다. 남편은 강화에서 멀리 경상도에 있는 청도 한옥학교에 다니더니 결국 그 열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한옥을 짓기에 이르렀다. 흥내만 낼 것이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나무 하나를 깎고 기둥 하나를 올리는 데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며 온 정성을 다했다. 일 년 여가 걸렸다. 이를 보고 주의에서는 “제 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잘 지어 무엇하느냐”고 나무랐다. 아내는 아내대로 속병을 앓았다. 하지만 ‘돈 안 되는’ 한옥 펜션의 안주인은 손님이 덮고 잔 이불을 손수 빨고 사랑채 아궁이의 불을 지피며 남편의 뜻을 묵묵히 따르고 있다.



맘씨 넉넉한 펜션 주인 조은산·김미주 부부

이렇게 찾아주세요!

강화 초지대교를 건너 가천의대를 지나 함허동천 방향으로 2~3분 정도 가면 다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좌회전해 1분 정도 가면 오른쪽에 있다.
문의 070-4127-3224
www.kyl3850.com



자연을 온전히 담은 집

시대와 변화를 거슬러 지은 집은 소박하면서도 견고하고 아름답다. 팔작지붕을 인 안채 '마리울'은 우아한 기품이 흐르면서도 꾸미지 않은 듯 겸양의 미덕을 품고 있다. 처마선은 한 마리 학이 땅으로 내려오다 다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옛 선비의 기개가 이러했을까. 힘이 있으나 적절히 절제된 아름다움이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나무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훈훈한 온기가 밀려온다. 칼바람에 뽀뽀 얼어붙었던 손과 발이 연인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듯 나긋나긋 풀린다.

집은 자연을 닮았다. 자연색을 그대로 담아 담백하면서도 고아한 멋이 흐르고 나무와 흙에서 배어나는 자연의 향은 그윽하다. 소통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천장은 열린 공간으로 거실과 방, 다실을 하나로 아우르며 공간과 공간,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잇는다. 눈길이 마주하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 곳곳에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집주인의 마음씀씀이도 집만큼이나 살갑고 훈훈하다. 처음 마주한 객을 가족인양 친구인양 반갑게 맞이하더니 때가 되니 식사를 푸짐하게 한상 차려 낸다. 뜨끈한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 고등어구이 한 접시, 김치 한 보시기가 차려진 두레반상. 안주인의 매운 손끝과 정성스러운 손맛에서 나온 음식은 조촐하지만 칼칼하고 야무진 맛이 난다. 여기에 잘 익은 강화 탁주 한잔을 곁들이니 세상고민이 무엇이나 싫다.

해거름에 세상이 검기울면 '바다가 그리운 뜰' 해원(海苑)에서 차를 마시며 풍류를 즐긴다. 따듯한 차 한잔에 사는 애기 두런두런 나누다보니 어느덧 몸과 마음이 넉넉히 채워진다. 무릉이 어디메뇨, 바로 이곳이지 싶다.



해가 지고 달이 뜨다

안주인은 손님이 오기 훨씬 전부터 사랑채 아궁이의 불을 지펴 놓았다. 그는 “뜨끈한 구들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는 손님들이 많다”며 그 맛에 산다고 활짝 웃는다. 아랫목에 손을 대니 후끈후끈 가슴까지 저릿하다. 이불 하나에 여럿이 웅기종기 모여 몸을 녹이니 발이 닿을 듯 말 듯 마음이 닿을 듯 말 듯 애뜻하다. 내친김에 장작불에 고구마와 밤을 구워먹으며 겨울밤 기나긴 이야기꽃을 피운다. 문득 화로에 밤을 구워 호호 불어 건네주시던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밤이 깊어가고 뜨끈한 구들장에 등을 대고 잠자리에 든다. 부드러운 달빛이 종이 바른 창을 지나 방안 가득 은은하게 들어온다. 나무 타는 냄새가 그윽이 밀려온다. 바람결 따라 청아하게 울리는 풍경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두드린다. 한옥에서의 하루, 그날 밤 비단금침이 아니어도 잠은 깊고 달다.



하룻밤 쉬어 갈 수 있는 인천의 한옥

하루 쯤, 일상을 잊고 아무 속박 없이 쉬고 싶다.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룻밤 쉬어 갈 수 있는 인천의 한옥집을 모았다.



동명헌

소박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깃든 전통한옥으로, 강화도 남단 갯벌마을의 품에 안겨 있다. 농부의 마음으로 감자와 고구마를 캐고, 땀흘린 후에는 곁에 있는 동막해수욕장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문의 937-3546
www.ehanog.com



해원

1935년에 지은 전통있는 한옥으로 우아한 풍취가 흐른다. 창밖을 보아도 한 폭의 그림, 넓은 정원에 철마다 아름다운 꽃과 풀이 피고 저 멀리 고려궁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강화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다. 문의 937-9317
www.ganghwahyewon.com



숲속의 아침

현대식 통나무집과 전통한옥 2개 동으로 되어 있다. 통나무집과 전통한옥이 어우러져 서양과 동양, 현재와 과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마니산 기슭에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푸르게 우거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937-9433
www.pensionstory.co.kr



위대한 유산, 할머니 손맛

초가집, 서울식당, 구가당씨 등... 할머니에 의해 세워지고 번성한 인천의 유명한 식당이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식당'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 어려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할머니의 손끝하나 믿고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인천의 역사가 되고, 맛이 되었다. 인천맛의 산증인인 할머니의 '위대한 유산'을 들여보았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서울식당 동구 화수동 화수부두 부근에 있는 복 잘하는 집으로 유명한 서울식당. 식당을 연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안문숙 할머니(85)는 아침에 복이나 민어를 다듬고, 정리하는 일을 하며 식당을 이끌고 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시작한 밥 장사는 손맛이 좋아 인근의 선주, 선원, 경매사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40년 전만 해도 화수부두는 고깃배들이 드나들던 포구였다. 수협도 있었으며 생선 경매가 이뤄지던 그야말로 사람들이 바글거리던 동네였다. 식당도 꽤 있었고, 잔술을 파는 술집도 많아 전성기를 구가했다. 지금의 적막한 거리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사글세로 5만원씩 내면서 시작한 장사는 처음엔 집세도 못낼 정도로 어려웠지만 새벽 선주들과 선원들을 상대로 잔술을 팔고, 그들을 위한 먹거리를 만들면서 기반을 다졌다. 당시만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5시에 식당문을 열었다. 그렇게 3~4년간 밥집을 운영한 후 현재 '서울식당'을 열었다.

복집을 운영하면서 복은 강원도 주문진에서, 민어는 전라남도 신안이나 목포에서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을 직송해 온다. 생선이 들어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날렵한 솜씨로 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정리하고, 살들을 먹기 좋게 뜨고, 정리하는 일을 한다. 장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 할머니의 손은 생선손질로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생선잡는 모

양대로 손가락 뼈가 구부러져 팔과 목의 신경을 누르고 있다.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할 시간에는 할머니는 가게에 있지 않다. 나이들어 가게에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장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혹 단골손님이라도 만나면 "이제 좀 쉬라"는 말을 듣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손맛은 이 집의 깊은 장맛에도 녹아 있다. 40년간 직접 담아 온 장으로 복탕을 만든다. 이 집의 복탕의 특징은 싱싱한 복에 된장과 고추장을 함께넣고 복탕을 끓여 국물이 담백하고 시원하다. 복탕에 들어간 보리고추장과 된장은 최고품의 고추와 소금 그리고 보리쌀과 콩에다 할머니의 정성이 더해져 만들어낸다.

고추장과 된장은 그해 담근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막 담은 고추장이나 된장은 '날내난다'며 된장은 3년 후, 고추장은 2년 정도 지난 완전히 익은 것만 사용한다.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한 맛은 입소문을 타면서 인천에 새로 부임하는 고위공직자나 텔런트들이 많이 찾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고 20~30년 넘게 이곳을 드나드는 단골손님들이 많다.

반평생을 복탕과 함께한 안 할머니는 아직도 서울식당의 기둥이다. 지금은 며느리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깊고 담백한 복탕의 국물맛처럼 할머니의 진한 손맛은 이 식당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문의 772-4538

초가집 중구 용동 큰우물먹거리 골목으로 걷다보면 '칼국수거리'라는 팻말이 보인다. 이 거리에 칼국수집의 터줏대감인 초가집이 있다. 초가집은 50년 넘게 전통방식으로 칼국수 맛을 내고있다.

신경현 할머니(79)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솜씨로 초가집 칼국수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이집의 칼국수는 바지락칼국수다. 옛날식 그대로 날콩가루를 넣고 밀가루를 반죽해 국수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바지락으로 국물맛을 내고 애호박, 파, 마늘을 넣고 끓이는 칼국수 국물의 맛은 잡맛없이 그야말로 시원하고 깔끔하다.

할머니는 지금은 나이도 있고, 아픈곳도 많아 막내딸이 일을 돕고 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칼국수 집을 운영했다. 지금도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하는일, 돼지고기 살코기를 삶아 야채를 다져 만두를 빚는 일, 칼국수와 어울리는 김치와 깍두기 담그는 일 모두 할머니의 손이 가야 하는 일이다.

신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하던 초가집을 이어받은 것은 46세때였다.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와병으로 부산에서 극장매점 운영하던 일을 접고 인천으로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며느리에게 칼국수 반죽하

고, 만두 빚고, 김치 만드는 일을 전수했다. 당시 할머니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딸 넷을 기르며, 장사를 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한다. 초가집 칼국수는 전통방식을 고집한다. 시어머니가 했던 방식 그대로 바지락을 넣고 끓이는 칼국수다. 여기에 칼칼한 고추짬지로 입맛을 돋운다. 다른곳에서 육수로 국물을 내도, 갖가지 해물을 넣은 칼국수가 유행해도 50년 넘게 바지락을 넣은 칼국수로 맛을 내는 방식을 잇고 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양도 푸짐하다. 초가집의 형태도 세월의 궤적과 함께 했다. 60년대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지금은 4층짜리 작은 빌딩의 모습으로 세 번 바뀌었다. 할머니는 구들장이 있고 앉아서 먹는 기와집이었을 때가 가장 장사가 잘됐다고 회고한다. 구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동네의 흥망성쇠와 그 운을 같이 했다. 동인천을 비롯한 용동, 신포동의 구심이 한창 활기있게 잘 돌아갈때엔 이곳도 번성했으나, 은행이 하나둘씩 떠나고 기업들이 다른곳으로 이전하면서 초가집에 드나들던 사람들도 줄었다. 구도심의 쇠락으로 손님은 줄었지만 할머니의 손맛에서 우러나는 초가집 칼국수의 맛은 사람들에게 의해 계속 전해 질 것이다. 문의 773-5245



구가당씨 34년 전통을 잇고 있는 실내포장마차 구가당씨.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에도 소개될 만큼 구자임할머니(76)가 만들어내는 안주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특히 5~6시간 동안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로 말은 우동 맛은 주당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와 같이 먹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꼭 찾아와 먹는 이집의 인기있는 품목이다.

할머니 성인 '구'자와 남편의 성인 '당'자를 합해 상호를 만든 '구가당씨'의 첫 출발점은 답동성당 옆 옛 박문학교 담벼락이었다. 이곳 담을 기둥삼아 포장마차를 12년간 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자식들과 살기 위해 시작한 포장마차는 장사를 할 줄 몰라 처음엔 마음고생도 심하고, 갈등도 많았지만 할머니의 손맛에 반한 애주가들이 늘어나면서 번성했다.

할머니는 밤부터 새벽까지 포장마차 장사를 하면서도 폐병에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의 병수발까지 도맡아야 했다. 할머니가 생계로 포장마차를 선택한 것도 아픈 노인을 돌보면서 집안일도 하고, 포장마차에서 팔 음식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8년을 앓다 돌아가셨다.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 남편의 병 수발도 다 할머니의 몫이었다.

할머니 가게의 안주는 깨끗함은 물론이거니와 정성이 담뿍 담겨있다. 싱싱하고 물 좋은 해산물에다 양념과 간이 잘 배인 돼지갈비, 천엽, 닭똥집 등 깨끗하고 정갈한 안주가 군침이 돌 정도로 먹고싶은 육구를 일으킨다. 다른 곳에 비해 안주의 종류도 많고, 특히 입맛을 다실만큼 안주가 맛있다. 할머니는 지난 34년간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왔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안주가 될만한 재료를 사다가 새로운 양념을 개발하면서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는 오늘의 구가당씨를 만들었다.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공부하느라 허기진 시립도서관 학생, 기독교병원 의사, 간호사, 돌체소극장을 드나들던 연극인들의 훌륭한 간식거리이자 먹거리였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할머니의 일과는 오전 8시 포장마차 안주거리를 만들기 위해 현대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부터 안주를 만들고, 조리해서 손님들이 먹을 수 있게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것이다. 아직도 허리 펴 새 없이 일한다. 본격적인 저녁 장사는 아들이 맡는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며 식당 구석구석을 살핀다. 할머니는 올해 소망을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막내딸 일이 잘되는 것과, 가족이 건강하게 한해를 보내는 것을 꼽았다. 문의 765-7523

새로운 출발 ‘든든한 동반자’

중소기업에서 강제퇴직을 당했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은 대기업과 달리 아무준비 없이 사회로 나와 막막한 환경에 부딪치게 된다. 인천전직지원센터는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전직을 돕고, 실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꼼꼼하고 실질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인천전직지원센터

중소기업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은, 대기업과 달리 전직에 대비한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일자리를 잃으면서 아무준비 없이 사회로 나와 막막한 환경에 부딪치게 된다. 전직지원센터는 회사 사정으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전직을 돕고,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꼼꼼하고 실질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직지원센터는 경총과 노총이 사업주체이며 우리시는 매칭펀드 형태로 1억5천만원을 지원,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전직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우선 홈페이지(www.newjob.or.kr)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이 되면 1대1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된다. 1대1로 상담컨설턴트가 지정되어 세밀하면서도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경력설계를 다시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과정을 돕는다.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와 면접스킬 훈련을 통해 실제 면접 시 본인모르게 나오는 어투나 말씨를

교정받는다. 또 창업을 생각 중인 구직자를 위해선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시장의 이해, 창업자금 마련방법, 세무신고, 입지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통해 창업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취업준비를 마친 구직자에게는 열린 정보와 전직지원센터 회원사에서 제공하는 히든잡을 제공해 취업 매칭률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사이트인 ‘사람인 인천지사’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문시현(45)씨도 전직지원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다. 택배회사에서 13년간 총무와 경리업무를 보았던 문씨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어쩔수 없이 퇴직했다. 퇴직이 결정되는 순간 앞날이 막막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져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힘든시간을 보냈다. 이후 5월부터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사에 도전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문씨는 10월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지원센터를 통해 면접스킬, 돋보이는 이력서 쓰는 방법 등을 지도받았다. 문씨는 전직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지만, 그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나이들어

공부가 쉽지 않았기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대공원 지압공원을 걸으면서 책을 읽었고, 수도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암기했다고 한다. 문씨는 지금 직업상담사 일이 매우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수철(가명, 54)씨도 전직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다. 국내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역임한 김씨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공인중개사, 세무사 공부를 위해 5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다.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나이와 5년간의 공백기가 걸림돌이었다. 김씨는 외국어능력, 업무능력, 열정을 강점으로 중소기업에 여러번 노크를 해봤지만 취직은 어렵도 없었다. 그는 구직활동 1년만에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이사로 취직해 현재 중국 청도에 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인천전직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층은 44.1세. 다른 취업지원센터에 비해 연령층이 높다. 평균취업률은 40%선이다. 회원가입 대상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직업경력이 1년 이상되어야 한다. 전직지원센터의 회원사는 경총 350개, 일반사 120개와 연계하고 있다. 전직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의 연령은 제한이 없다. 20대부터 50, 60대까지 다양하다.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 명함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260-3800

위치 :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직업상담사로 재취업에 성공한 문시현(45)씨



이력서 사진 촬영





동양의 파리 Ho Chi Minh

우리에게는 월남(越南)이란 명칭이 더 친숙한 베트남. 베트남의 옛 사이공 호치민. 호치민은 개방정책의 훈풍을 타고 옛모습 '사이공'으로 빠르게 부활하고 있다. 고층빌딩이 스카이라인을 그리며 '아시아의 파리'라는 옛 영화를 되찾고 있다. 호치민 땅을 밟는 순간 익히 알려진 대로 거대한 오토바이의 군무와 요란한 경적 소리에 이방인은 잠시 정신을 잃는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베트남의 햇빛은 강렬하다. 화창한 하늘 덕분에 모든 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 그 하늘 아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식물뿐이 아니다. 대다수 인구층을 구성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무럭무럭 자란다. 이것이 베트남의 힘이다. 베트남은 자전거시대 뒤 짧은 오토바이시대를 거쳐 지금 자동차시대로 빠르게 직진 중이다.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치민 중심가에 높다란 건물 하나가 새롭게 올라가고 있다. 현대건설이 짓고 있는 지상 68층 높이의 비텍스코 파이낸셜타워다. 한때 총부리 겨누던 두 나라가 힘을 합쳐, 굽이굽이 이어지는 사이공강 물줄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베트남 최고 높이의 빌딩을 짓고 있다.



목민심서 탐독한 ‘호 아저씨’ 호치민시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거리 곳곳에서 쉽게 프랑스풍의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노트담 성당은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건축물로 호치민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 당시 모든 자재를 프랑스에서 들여와서 세웠고 전형적인 네오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프랑스 식민통치의 상징이었다. 빛바랜 적색 벽돌 끝으로 나란히 뻗어 있는 두 개의 첨탑 등 빼어난 건축미로 호치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노트담성당 옆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우체국은 프랑스 통치시대인 1886~1891년에 설립한 프랑스 스타일의 건물이다. 정문 입구 상부에는 큼직한 시계가 시간을 알리고 있다. 호치민시의 상징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인민위원회 청사는 프랑스 통치시절에 지어진 전형적인 프랑스식 건물이다. 밤이 되면 우아한 조명을 받아 호치민에서 가장 아름답

다운 야경을 연출한다. 청사 앞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노인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통일 영웅’ 호志明(胡志明)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애국·애족 정신을 실천한 그는 혁명운동을 하면서도 늘 근검절약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죽을 때 평소 입던 책들과 두 벌의 옷, 몇 벌의 속옷, 기워 신은 양말, 페타이어를 잘라 만든 신발, 낡은 모자만을 남겼다는 일화는 그의 면모를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이 남루한 행색의 초상 앞에서 베트남인들은 언제나 숙연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멈춘다. 비록 공산주의자였지만 그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까지 탐독하며 민치(民治)에도 깊은 애정을 쏟았으며, 정적을 숙청하지도 자신을 우상화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후에도 변함없이 ‘호 아저씨’로 불리며 베트남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호치민 동상 받침대에는 ‘독립과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말이 새겨져 있다.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대략 33만km²이고, 인구는 8천600만명이다. 54개의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이지만, 킨족(베트남인)이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며, 소수 민족은 고원과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사이공으로 더 알려졌던 남부 베트남의 수도 호치민은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북부의 베트남 해방군에 의해 사회주의로 통일된 이후 도시 명칭이 호치민시로 변경된다. 호치민은 이제 베트남의 상업과 경제 중심지로 수도 하노이보다 인구집중률이 더 높다. 호치민시 면적은 베트남 전체의 0.6%, 인구는 7.5%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구치터널의 지하도시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른 호치민에는 전쟁과 관련된 건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베트남 역사의 상징인 통일궁은 1866년 프랑스 총독관저로 건축했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작전 본부로 사용하던 곳이다. 지하에는 전쟁 당시 종합상황실을 실물 그대로 전시하고 또 당시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전쟁박물관에는 베트남 전쟁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사용했던 각종 전쟁 관련 물품들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 내부 전시실에는 베트남 전 당시 미군의 잔학상을 고발한 수많은 화보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 박물관은 고엽제 피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진과 전시품들이 있다.

전쟁 유적 중 가장 실감나는 곳은 구치터널이다. 호치민시 인근에 있는 구치는 약 3백km에 이르는 옛 베트콩의 땅굴 지역이다. 터널은 왜소한 베트남인 어깨 넓이로 파 있다. 개미굴 같은 이 터널은 본디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이 프랑스에 항쟁하기 위한 비밀 아지트였다. 미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베트콩은 호미와 괭이로 무려 3백km의 터널을 파서 3층 규모의 지하도시를 만들었다. 터널 안에는 군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도 있었다. 터널 속에는 최대병력 1만7천명을 수용했다.

미 제25사단본부와 지척 거리에 있던 정글 속 구치터널의 미로를 돌아보면 미국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전쟁 당시 베트콩의 활동지역인 구치터널을 파괴하기 위해 미군들이 이 지역에 엄청난 폭탄과 고엽제를 쏟아 부었지만 베트콩의 본거지인 이 지하 요새는 끄떡없었다. 정글은 그 위를 헬리콥터로 날아다니는 자의 편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어서 싸우는 자의 편이었다. 그들은 일본, 프랑스, 미국 그리고 중국과 싸워 ‘민족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인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지금은 왕년의 침략자 미국, 프랑스, 일본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모셔 외화를 벌고 있는 역사 아이러니의 주인공들이다.

메콩델타의 아줌마 뱃사공 베트남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메마른 목을 축이는 것 뿐 아니라 생업인 농농사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땅엔 비가 넉넉히 내린다. 강물과 바닷물은 여기저기에 절경을 낳았다. 호치민 인근 메콩델타에 가면 옛 사이공의 흔적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굵이굵이 작은 물길을 따라 들어가려면 베트남인의 체구를 꼭 닮은 날렵한 배를 타야한다. 델타지역에 사는 ‘아줌마뱃사공’이 배를 띄운다. 그녀의 체구는 가냘프다. 슬며시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렇지만 배는 몇 번의 노저음만으로도 날렵하게 밀림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千字文 하늘과 땅의 진리가 이 안에 있나니

천 자 하나하나 필획이 강건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며 살아 움직이듯 생동감이 넘친다.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다. 서예가 심은(沁隱) 전정우 선생은 자신을 잊고 세상을 버린 선(禪)의 삼매경에서 천자문 118체 600종을 완성했다. 김정희, 왕희지, 구양순, 안진경... 역대 명필의 혼을 담아 써내려간 글씨 한 자 한 자. 그 안에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세상의 진리가 담겨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구름이 자유로이 떠돌 듯, 붓을 들다

필묵에 맑은 기운 불어넣어 하얀 종이에 한 획 한 획 정성스레 써 내려간 글씨. 좋은 글씨는 선(線) 하나에도 살아가는 참된 도리와 바른 이치가 담겨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의 선비들은 붓을 놓아버렸다. 심은(沁隱) 전정우 선생은 오늘날 서예의 명맥을 잇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간부로 일하며 출세가도를 달렸지만 운명의 기로에서 서예가의 길을 택했다. 그 후 1987년 동아미술제 미술상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대상을 받으며 서예가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명망을 쌓았다. ‘온 열정을 다해 인천을 위해 일하고 시민에 보답하겠다’는 뜻의 우리시의 올해 사자성어 ‘적성보인(赤誠報仁)’도 그의 손끝에서 나왔다.

마음 따라 그윽한 묵향(墨香) 따라 심은 선생이 있는 강화로 간다. 강화대교 건너 한적한 국도를 달리다 보니 저 멀리 산기슭에 아늑히 안긴 ‘심은미술관’이 보인다. 강화에서 나고 자란 선생은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강후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미술관으로 새로 세웠다. 벌써 10여 년째 미술관을 꾸리고 있는 선생은 고향 강화를 사랑하는 만큼 이곳을 사랑한다. 운동장 곳곳에 자리한 조각작품에서 예술가의 섬세한 감성이 전해지고 그 곁에 둘러진 잘 가꾼 풀과 나무는 마음에 여유를 드리운다.

한 발 한 발 돌계단을 오르니 입구에 ‘심은미술관’이라는 손글씨가 곱게 새겨진 학교가 나온다. 구름이 자유로이 떠돌 듯 시내물이 유유히 흐르듯, 담백하고 편안한 글씨체다. 지금 저 글씨를 쓴 사람을 만나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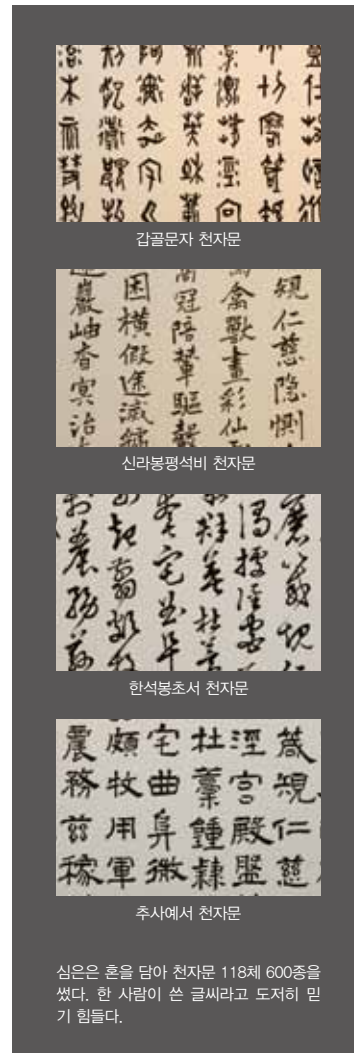




숨 막히도록 경이로운, 118체 천자문

서예가라면 누구나 천자문을 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무나 쓸 수는 없다. 천 자 하나하나 모두 다르게 써 예술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천재성은 물론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로 인해 이제껏 중국 원(元)의 조맹부가 6체, 명(明)의 문징명이 4체, 당(唐)의 구양순이 3체, 우리나라는 한석봉이 2체의 천자문을 남겼을 뿐이다. 그런데 심은은 118체 600종의 천자문을 썼다. 그는 김정희, 왕희지, 구양순 같은 역대 명필가의 서체를 비롯해 갑골문자에서 한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서체를 오늘날 살아 움직이게 했다. 이는 3천년 서예사가 장대하게 펼쳐진 감동의 대서사시다. 경이로움에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 진다. 천 개의 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대 서풍은 물론 그 사람이 필체에 담으려 한 세계관을 유추해내는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한서체에서 불과 몇 십자 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는 더 그렇다. 선생은 작가의 필의(筆意)를 끌어내고 문자구조를 헤아리고 빈틈을 메워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6년간 일구월심(日久月深)하여 천자문 118체 600종을 완성했다.

“118체 천자문을 다 쓰고 나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심은 전정우는 다시 태어났다. 천자문을 한 자 한 자 쓰면서 쌓은 내공으로 나만의 새로운 작품세계를 열어 가겠다.” 선생은 말한다. 인생이 살다 마는 것이라면, 예술의 길은 하다 말고 가다 마는 고행이기에 예술가의 길은 쉽지 않다고.



이렇게 찾아오세요!



올림픽도로 공항 방면 → 김포 방향 48번 국도 → 강화대교 · 강화읍 → 48번 국도 → 인하리검문소에서 외포리 · 창후리, 교통 방면으로 1분 거리

관람시간 | 10:00~17:00(매주 월, 목요일 휴관)

관람요금 | 대인 3천원, 소인(학생, 어린이) 2천원

문의 | 933-0964, 016-364-0946

심은의 글씨는 인천의 보물

살아서 천자문 5체라도 남기고 싶어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남들은 고행이라 하지만, 그는 작품을 쓰며 마음에 일었던 떨림 무한히 펼쳐지는 정신적 희열에 육체의 고단함을 잊었노라 말한다. 심은 선생이 시대를 거슬러 먹빛 발자취를 이토록 열심히 쫓는 까닭은 단순히 작가로서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다. 한자를 모르고 그 안에 담긴 고매하고 강직한 선비정신을 잊고 사는 세상이 염려되어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려는 것이다.

“한글도 우리 글씨, 한자도 우리 글씨다. 우리가 오래도록 써왔으며 그 안에 선인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118체 천자문은 쓰기만 내가 썼지 내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것이다. 내 작품이 오늘날 천자문을 재발견하고 한국의 수준 높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나 예술가의 뜨거운 열정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심은미술관은 부지가 좁고 건물이 협소하여 천자문 작품을 30점 밖에 걸지 못하며, 그나마 안전하지 않아 원작이 아닌 모조품을 전시하고 있다. 강직하면서도 청초하며 음악 같은 울림이 있는 유려한 필치, 이 모든 것을 진실로 보지 못하다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심은 선생은 고향 강화에 천자문마을과 천자문박물관을 세워 나라 안팎에 한국의 천자문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일대의 소망이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세계에 무엇을 보여줄지 고심하는 우리로서, 그의 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연극 〈너와 함께라면〉
일시 2월 11일(금)~12일(토)
금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3시, 7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문의 부평아트센터 500-2000



인천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어린이왕자〉

지나해 가족극 〈헨젤과 그레텔〉로 '고전동화의 재구성, 어린이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가족극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무대'라는 평을 받은 인천시립극단이, 이번에는 생텍쥐베리의 세계적인 명작 〈어린이왕자〉를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원작의 아름다운 명대사와 감동을 그대로 살린 이번 공연은 배우들의 흡입력 높은 연기로 더욱 특별한 작품으로 다가온다. 마지막 순수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어린이왕자의 이야기가 새로운 학년을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기획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225개 도시, 4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인천에 상륙했다. 2010~2011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이 기대되는 것은 20년 무대 호흡을 자랑하며 환상의 무대를 선보일 최정원, 남경주 콤비를 드디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년멤버 이경미, 황현정, 성기윤이 이번 인천공연에 함께하며 작품의 깊이와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해 줄 것이다. 최첨단 기술력이 응축되어진 세련되고 심플한 무대와 최고 수준의 음향, 아름다운 그리스 섬의 풍광을 만들어 내는 조명, 한국공연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220벌의 의상은 뮤지컬 〈맘마미아〉 속으로 관객들을 집중시킨다. 또한 스토리와 절묘하게 매치되는 ABBA의 음악은 뮤지컬 〈맘마미아〉 최고의 매력이다.



시립교향악단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Ⅲ - 러시아
일시 2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뮤지컬 〈맘마미아〉
일시 2월 18일(금)~20일(일)
금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3시, 7시30분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하늘이엔티 1688-6675

연극 〈너와 함께라면〉

맘 놓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연극 한 편이 인천관객을 찾아온다. 연극 〈너와 함께라면〉은 70살 남자친구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등 연속된 거짓말 속에서 벌어지는 스피디한 긴장감으로 연극을 보는 내내 즐거움에 빠지게 한다. 점점 꼬여가는 사건 속에서 실 틈없이 터져 나오는 웃음은 어느새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린다. 생각할 틈 없이 치고 빠지는 치밀한 대사와 개성 만점 캐릭터가 매력적인 〈너와 함께라면〉은 치열한 해프닝과 웃음 속에서도, 40살 나이 차의 커플을 통해 사랑의 본질적 덕목인 '진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연극이다.

시립교향악단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Ⅲ - 러시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아심차게 준비한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우리가 주목하는 러시아의 작곡가 세 명을 만날 수 있다. 구모영 부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기획연주회의 시작은 린스키 코르사코프가 해군사관생도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시절에 스페인풍의 곡조에 맘이 끌려 작곡한 〈스페인 기상곡 Op.34〉이 연다. 이어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 김나영과 함께 매력적인 오케스트라 선율과 화려한 피아노 테크닉을 느낄 수 있는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내림마장조〉를 들려준다. 연주회의 마지막은 무소르그스키가 화가였던 친구의 유작 전람회에서 본 10점의 그림을 음악으로 표현한 〈전람회의 그림〉이 장식한다. 러시아로부터 찾아 온 숨겨진 명곡과 함께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한겨울을 즐겨보자.

이달의 공연 · 전시

tue 화	1	이달의 演 2월 10일~2월 27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르네상스 학습자료전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5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22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29
wed 수	2	2월 11일~2월 17일 제12회 대한민국인터넷 서예 · 문인화대전 전시회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월 11일~2월 17일 꽃의 향연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2월 18일~2월 24일 제11회 대한민국제물포 서예 · 문인화 서각대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6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바다살리기 환경뮤지컬'문어의 바다사랑'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짜리채를 ☎교육극단 상상 010-4923-1948	23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바순양상블의 '해피바순' 오후 7시 / 부개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507-5996	30
thu 목	3	2월 25일~2월 28일 은하정 석사학위 청구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2월 25일~2월 28일 제6회 경인인물화 작가회창간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2월 25일~2월 28일 제고사진반 창단30주년 기념사진전시회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7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바다살리기 환경뮤지컬'문어의 바다사랑'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짜리채를 ☎교육극단 상상 010-4923-1948 연극 '은혜깊은 호랑이' 오후 7시 / 부개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극단 사다리 507-5996	24 인천시립교향악단 '위대한 작곡가시리즈' 오후 7시 30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1588-2341 -인천시립극단-	31
fri 금	4	11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연극 '너와 함께라면' 오후 8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500-2000 마당극 '신명나는 놀이 한마당'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505-5995	18 뮤지컬 〈맘마미아〉 오후 8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1688-6675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연극 '은혜깊은 호랑이' 오후 7시 / 부개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극단 사다리 507-5996	25 인물청소년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5천원 ☎인물청소년교향악단 888-0807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로맨티카아르베의 '듀오 피아노'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 전석 3천원 ☎505-5995	
sat 토	5	12 연극 〈천정엽마와 2박3일〉 오후 3시, 7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6만6천원, R석 5만5천원, S석4만4천원 ☎에스컴퍼니 1588-2341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후 2시, 5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연극 '너와 함께라면' 오후 3시, 7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500-2000	19 뮤지컬 〈맘마미아〉 오후 3시, 7시 30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1688-6675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후 2시, 5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팝페라 그룹 '라스페란자' 오후 4시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짜리채를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	26 청소년을 위한 팝콘서트 오후 7시 30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8천원 ☎(사)한국음악협회인천지회 873-4442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후 2시, 5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sun 일	6	13 연극 〈천정엽마와 2박3일〉 오후 3시, 7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6만6천원, R석 5만5천원, S석4만4천원 ☎에스컴퍼니 1588-2341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후 2시, 5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20 뮤지컬 〈맘마미아〉 오후 2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1688-6675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후 2시, 5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27 인천시립극단 가족극 〈어린이왕자〉 오후 2시, 5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1588-2341 -인천시립극단-	
mon 월	7	14	21	28	

그들이 사고파는 것은 ‘추억’이다

양키시장 가게 진열대에 놓여있는 허쉬 초콜릿과 코티 분에 쌓이는 것은 먼지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과거’가 그 위에 쌓인다. 그들이 파는 것은 이제 양키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다. 시간에 떼밀려 가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뒷모습은 슬프고 서럽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송현동 100번지로 스며든 양키물건

송현동 개천가에 허름한 노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밤늦도록 노점들이 불을 밝히면서 일대는 자연스레 야(夜)시장이 되었다. 1936년에 노천시장에 양철지붕을 얹어 ‘일용품시장’으로 변모하였다. 이것이 중앙시장의 시작이다. 동인천역을 끼고 있는 덕분에 늘 사람들로 번잡한 인천의 대표시장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은 크게 혼수상가, 그릇상가 그리고 ‘양키시장’으로 색터가 나뉘며 몸집이 커졌다. 그 중 가장 중앙시장의 색깔을 진하게 보여준 게 양키시장이다. 양키시장의 정식 이름은 ‘송현자유시장’이다.

송현동 100번지 양키시장. 물들인 군복, 청바지, 보세웃...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젊은 날 이곳과 얽힌 추억을 한두 개 쯤 갖고 있는 ‘무대’다. 1965년 12월 정식으로 시장 등록이 되었지만 그 시작은 6·25 동안 직후부터였다. 인천에는 미군부대가 곳곳에 있었다. 뒷문으로 흘러나온 양키물건들을 이곳에서 거래했다. 양주와 양담배, 향수, 로션, 초콜릿, 스낵, 통조림 등. ‘양키’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보다는 동경심으로 인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던 물건들이 좁은 선반에 뽁뽁하게 진열돼 있었다. 다른 편 가게에서는 간이침대, 야전삽, 수통, 군용식량 등 각종 미군용품도 거래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돈 달러와 이른바 ‘빨간책’이라고 불리던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등 같은 도색잡지도 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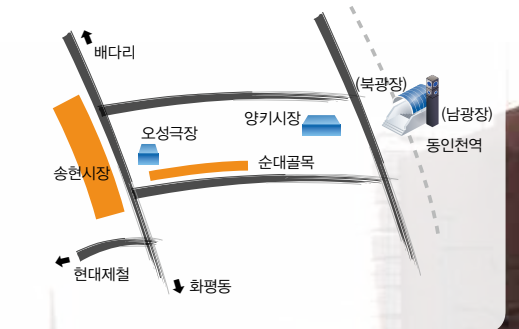
허쉬 초콜릿과 코티 분

인천에 양키들은 이제 없다. 양키는 갔지만 아직 양키시장은 남아있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듯 어스름 조명 아래 늙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다. 양키시장은 일반시장과는 모습부터가 다르다. 3층 높이의 건물들이 시장을 사방으로 막고 있다. 시장이라기보다는 골목이다. 1백여 개가 넘는 작은 가게들이 하루종일 한조각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골목에 줄지어있다. 30초 짜리 백열등 아래서 ‘은밀히’ 거래하기 딱 좋은 분위기다. ‘째’를 쫓아 드나들던 사람들 발걸음으로 항상 활기를 띠던 시장도 이제는 바람만이 골목을 쓸쓸히 배회한다.

“다 죽었어. 가게 지키던 사람은 늙어죽고 가게는 장사 안돼 죽었지. 마트에 가면 이제 미제물건 다 살 수 있잖아. 오랜 단골이나 그냥 옛 생각나서 가끔 들르는 사람들 밖에 없어.” 아들의 어린시절 별명을 상호로 쓰는 톨툴사 허순영 사장(73)의 설명이다. 양키시장 가게 주인 중에는 92세 된 ‘현역’ 김고분 할머니도 있다. 김 할머니는 한 평이 채 안되는 가게에 매일 나와 미제 물건에 쌓이는 먼지를 털어낸다. 양키시장의 물건은 이제 더 이상 미군양키들에게 나오지 않는다. 남대문시장 중간도매상들이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들을 이곳에 공급한다. 가게 진열대에 놓여있는 허쉬 초콜릿과 코티 분을 보자 불현듯 여러 가지 ‘과거’가 그 위에 겹쳐진다. 그들이 파는 것은 이제 양키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다. 시간에 떼밀려 가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뒷모습은 서럽다.



❶ 누가 누구를 ‘구제’한 것일까. 양키시장 한쪽 골목은 아직도 ‘구제 품’을 팔고 있다. ❷ ‘미제는 뭐도 좋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제 양키물건은 옛 향수를 더듬게 하는 소품일 뿐이다.





①

잔상마저 사라진 오성극장

수선, 마크, 명찰, 오바로크... 빛바랜 간판들이 어지럽게 걸려있는 양키시장 골목이 끝나는 곳에 극장이 하나 있다. '애관2관'이라는 희미한 글자가 붙어있는 오성극장이다. 마치 시장을 올라탄 모습을 하고 있는 오성극장은 씨네판, 애관2관으로 이름을 바꾸며 운영하다가 2003년 4월 11일에 스크린을 내렸다. 문은 쇠줄로 굳게 감겨져 있다. 옛 영화의 잔상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바로 앞에서 50년 동안 구제품 옷을 팔아 온 흥신사 주인에게 극장에 들어가 볼 수 있냐고 물었다. “거긴 뭐 할려고 올라가요. 아마 귀신 나올텐데...”하며 혹시 애관극장에 문의하면 될지도 모른다며 말끝을 흐린다. 애관극장에 연락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야 만 했다. 극장 바로 앞에는 재난위험시설(D)급 지정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다. 이제 우리의 기억뿐만 아니라 눈에서도 영원히 사라질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극장 옆에는 순대골목이 있다. 얼마 전까지 순대국밥집은 골목을 양쪽으로 마주 보고 있었다. 20여 곳의 순대집이 그야말로 순대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지금은 동인천재생사업으로 한쪽이 철거된 상태다. 이 순대골목의 뿌리는 30여 년 전의 수문통 시장이다. 당시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가까운 수문통 주변에는 항만이나 공장 노무자들이 즐겨 먹던 순대국밥집이 시장통 안에 많이 있었다. 수문통 시장이 헐리면서 국밥집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오고 기존에 있던 몇몇 국밥집들과 합쳐지면서 순대골목이 된 것이다.



②

③



④



⑤

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디지털 시네마 시어터'였지만 오성(애관2관)극장은 세월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②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송현시장통에 재현된 빨래터 ③ 순대처럼 길게 늘어진 순대골목 ④ 재봉틀 하나로 자식 모두를 대학 보낸 중앙시장의 어머니들 ⑤ 중앙시장 2층에 자리잡은 공중화장실. 개장된 지 50년 된 '문화재급' 화장실이다. 사용료는 200원이다.

수문통과 세느강

송현시장은 중앙시장과 길 하나를 놓고 마주하고 있다. 1960년대 초에 문을 연 송현시장에는 영화 파이란에서 '루저' 최민식과 공형진이 소꿉잔을 기울이던 '영종집' 등 정감가는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장이 얼마 전 문화관광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이란 타이틀을 받았다. 시장 안에는 옛 향수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빨래터와 펌프장 등을 복원해 놓고 길거리갤러리도 만들었다. 송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것은 인근에 골목이 그대로 살아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대 달동네였던 곳을 추억할 수 있는 수도권산박물관이 있기 때문이다. 송현시장 부근에는 수문통이 있다. 이제 수문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스팔트 밑에 여전히 남아 있다. 화평치안센터와 송현치안센터 사이 약 200m 거리에 수문통이란 수로가 있었다. 이 수로는 바다와 배다리까지 이어지는 갯골이었다. 지대가 낮은 이 수문통으로 온갖 생활하수가 다 떠내려 왔다. 여름이면 악취가 코를 찌르는 '똥바다'였다. 하루에 두 번 들어오는 밀물은 수문통을 정화시켰다. 썰물로 나갈 때 온갖 쓰레기는 수로를 따라 바다로 떠내려갔다. 물때 따라 작은 돛단배가 수문통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뗏 모르고 고깃배를 쫓아 온 갈매기가 길을 잃기도 했다. “여름철 장마 때는 전동, 인현동 등 윗동네에서 놀다가 하수구로 들어간 공들이 다 떠내려와 이곳 아이들은 돈 주고 공을 산적이 없었어요.” 수문통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방송인 한영우씨의 추억담이다. 백중사리 때는 어김없이 물난리가 나기도 했다. 바닷물이 아궁이까지 차기 일쑤였다. 인근 송현초등학교 교실 마루바닥에 물고기가 버둥거리기도 했다. 배짱 좋은 아이들은 수문통 갯골에서 먹을 감기도 했다. 동네사람들은 수문통을 '세느강'이라고 부르며 늘 함께 했다. 화평동 쪽 수문통 끝자락에는 한동안 '수상가옥'이 있었다. 갯골을 일부 복개한 곳 위에 많은 판잣집들이 지어졌다. 안방 밑으로 바닷물이 침랑거렸다. 우리나라 유일의 수상가옥인 셈이었다. 1996년 수문통의 나머지 부분을 복개하고 수상가옥은 철거했다. 그렇게 '세느강'의 낭만과 추억이 땅 밑으로 함께 묻혔다.



인천을 사랑하는 문화 알리미

갤러리 카페 '폭스' 여사장 장희순

인천의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논하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와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술집 '폭스'다. 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희순씨(43)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강점으로 손님과 교유한다. 손님들도 장씨를 누나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대하는 단골들이다. 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인천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장소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림,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다. 가게는 갤러리 카페를 지향한다.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내주고, 손님은 그림이나 전시물을 보다가 마음에 꽂히는 작품을 사간다. 장씨는 작품전시에 그치지 않고, 일 년에 네 번 정도 국악, 현대무용, 퍼포먼스 공연을 이곳에서 열고 있다.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인천을 정말 사랑해요. 시민들이 인천에 살아 행복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장씨의 소망은 폭스가 인천시민들 소통의 장, 문화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영민한 눈빛이 반짝이는 소녀

웹진 Moo 청소년기자 정고은

청소년기자라니 으레 당차고 씩씩할 줄 알았다. 허나 열일곱 소녀는 낯선 이가 연이어 던지는 질문에 발그레 홍조를 띄며 수줍어했다. "늘 인터뷰만 하다가 반대로 묻는 질문에 답하려니 어색하고 떨려요." 정고은(계산여고 2) 양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웹진 MOO의 기자다. 학교에서 기사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고 마음이 끌려 지원하여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소한 일상을 담는 것으로 시작하다 지금은 깊이 있는 기사를 쓰려고 애쓰고 있다. "교육, 입시 등 청소년이기에 더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거예요. 특히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보다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동그란 안경테 너머로 소녀의 영민한 눈빛이 반짝인다. 한 떨기 꽃처럼 여러 보이지만, 기자답게 아무지고 다부진 면이 분명 있다.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트리고 싶다는 열일곱 소녀. 그녀의 얼굴 위로 비추는 겨울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송 시장,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위해 미국 방문

송영길 시장이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 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송 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 투자유치단은 방미 기간 동안 뉴욕과 워싱턴 에서 기업 방문과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송 시장은 특히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북한의 정세와 이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 를 깊이 논의했다. 송 시장은 특히 현재 외교통상부와 협조해 한·중· 일 정상회의 사무국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에 한국의 젊은 이들이 더 많이 진출해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반 총장은 오는 8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에 참석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시가 8개 국제기구 유 치를 적극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송 시장은 또 미국 방문 중 글로벌 항공 정비 기업인 프래트 앤드 휘트 니(P&W)사와 영종하늘도시 내 항공엔진정비센터 건립 관련 합의각서 (MOA)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는 P&W사가 인천공항 인근의 영종하늘도시 4공구 6만7천 ㎡에 항공기 엔진 정비센터를 세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센터는 300 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고 2020년까지 연간 200대 수준의 대형 엔진 정비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송 시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연평도 사태 이후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어 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져 국제사회에서 보는 인천의 불안한 이미지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32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까지 달린다

우리시는 인천지 하철 1호선 중점인 계양역과 검단신도 시를 연결하는 검 단연장선의 건설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1조3천332 억원을 들여 인천 지하철 1호선을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새로 건설 하는 계양역~검단신도시 10.9km 구간에는 5개 정거장이 들어 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자인 LH와 인천도 시개발공사가 부담한다. 시는 또 2014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 하철 2호선(서구 오류동~남동구 운연동)의 검단지선 3.12km 도 2017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천808억원 을 투입하며 2호선 원정사거리~검단신도시 구간에 2개 정거 장을 건설한다. 시는 올 상반기 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한 뒤 하반기에 ‘검단신 도시 도시철도 건설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내년 말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3년 2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 이다. 문의 :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83



2013년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우리시는 오는 2013년까지 내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 뮤니티 공간 ‘다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외국인 음식점과 쇼핑센터 등 다문화 요소가 있 는 지역을 우선 검토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이어 외국인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내년 초 공사를 시작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외국인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 는 시설 혹은 단체와 교류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안산시 다문화마을, 김해시 아시아 다문화특화거리, 부산시 초량동 외국인거리 등 각 지자체의 다문화 특화거리를 참고해 마스터플랜 을 마련키로 했다. 문의 : 시 도시디자인추진단 440-4782

피부색 달라도 우리는 하나

우리시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 대한다. 시는 올해 연수 구와 동구에 다문화가 정 지원센터를 신설, 시 내 지원센터 수를 모두 9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방문교육지도사 146명을 활용,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를 상대로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 부터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 3천700여 명에게 다문화 보 육료를 지원한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통역도우미 30명을 양성해 구·군청과 경찰서 등에 배치, 모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인천지역의 결혼이민 자 수는 모두 1만1천344명이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68



어르신도 맘껏 일할 수 있는 인천

우리시는 올해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노인들에게 1만3천개의 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공공분야 일자리가 1만 360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민간분야 일자리가 2천640개다. 시는 특히 올해 새로운 형태의 민간분야 고용창출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시와 자치구의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인력파견회사를 설립, 시내 초·중·고교나 빌딩 등에 청소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의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 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내 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9

AG, 5만명 서포터즈가 응원합니다!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5개 대회 참가국을 응원, 지원하는 서포터즈를 5만명 규모로 운영할 계 획이다.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는 일반시민 3만8천명, 학생 1만명, 다문 화가구 1천명, 공무원 1천명으로 구성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 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전용 홈 페이지 개설 등의 준비를 거쳐 회원국별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포터즈 참가자들은 문학경기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6월부터 회원 국 언어와 문화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458-2171

2014년 녹색 둘레길 난다

우리시는 올해부터 오 는 2014년까지 25억 원을 들여 16개 코스, 140km의 둘레길을 조 성할 계획이다. 시는 계양산~봉재산 을 잇는 인천의 녹지축 에 7개 코스, 66.9km의 둘레길을 내고 인천대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월미도~만석· 화수부도로 이어지는 4개 코스, 42.6km의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 이다. 월미산, 자유공원, 수도국산, 마니산, 장봉도에도 5개 코스, 30.5km 거점 둘레길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둘레길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살려 안내판, 이정표 등의 시설물을 최소로 짓고 목재, 돌 등의 천연소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걷기행사와 그림 그리기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둘레길을 테마가 있는 쾌적한 이야기 길로 조성하면 시민이 도심 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62



1천개 강소기업 육성

‘제물포스마트타운(JST)’과 함께 우리시가 올해 역점 뒤 추진하는 사업이 ‘1천개 강소기업 육성’이다. 송 시장은 연초부터 모아택을 비롯해 지역 내 강소기업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천에는 이미 모아택, 에스피지, 에이스테크놀로지 같은 세계적 부품업체들이 상당수 자리 잡고 있다. 우리시는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외 시장을 주름잡을 1천개 강소기업을 추가로 발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선정 대상은 △기업경영의 건전성 △기술력 보유 여부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이다. 인천경제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물류·자동차 부품 제조·기계·금속·정보통신·바이오(BT) 등 5개 산업군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이 일차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20억원 이상을 들여 기업군 별 공동 해외마케팅과 홍보 활동도 지원하고, 조달구매 와 공동구매를 통해 국내 판매활로 확충도 지원한다.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을 통한 기술개발 교류와 협업 및 이업종 간 교류 및 컨설팅도 돕는다. 시 관계자는 “강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 최종 보완과정 중에 있다”며 “부품, 소재 등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중소기업지원과 440-4253

‘학력선도학교’10곳 발표
인천고, 제물포고 등…4년간 16억원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1일 인천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곳과 ‘잠재성장형 학교’15곳을 선정, 발표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된 일반계고등학교 10곳은 2014년까지 학교당 연 4억원이 지원되며, 해당학교 희망시 자율학교, 학교장 공모제, 연구학교로 지정된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된 곳은 인천고, 제물포고, 신명여고, 인천논현고, 인천여고, 세일고, 부평고, 계산고, 가림고, 인천원당고 등이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내년부터 학생선발 정원의 20%를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먼저 뽑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잠재성장형 학교는 학익여고, 인하부고, 안일여고, 광성고, 인천만수고, 동인천고, 옥련여고, 송도고, 인천산곡고, 부평고, 인천영선고, 계산여고, 서운고, 가좌고, 서인천고 등 15곳이다.

잠재성장형 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우선지원 명목으로 학교당 5천만원이 지원된다. 시 교육청은 선도학교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되, 2년 후 중간평가를 벌여 재지정 여부 및 인센티브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선도학교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낸 3개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40억원 범위내에서 기숙사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교육청 4208-225

복지재단 설립 추진, 새 복지시대 눈앞에

우리시는 2012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사회복지법인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시가 복지기금 94억원을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시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빈곤층 1만2천가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사업과 희망결연사업, 행복키움통장사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는 71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 컨설팅을 담당하고 시민들의 복지요구를 조사해 관련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조례 제정, 설립준비단 발족, 보건복지부 재단설립 승인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복지재단 설립이 민간과 정부를 연결한 인적, 물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12



권역별		학력향상선도학교	잠재성장형 학교	
1권역	남구	인천고	학익여고	인하부고
2권역	중·동·옹진	제물포고	인일여고	광성고
3권역	남동구1	신명여고	인천만수고	
4권역	남동구2	인천논현고	동인천고	
5권역	연수구	인천여고	옥련여고	송도고
6권역	부평구1	세일고	인천산곡고	
7권역	부평구2	부평고	부평여고	인천영선고
8권역	계양구	계산고	계산여고	서운고
9권역	서구1	가림고	가좌고	
10권역	서구2	인천원당고	서인천고	
계		사립2, 공립8	사립4, 공립11	

신동근 정무부시장, 일본 향운협회 회장 일행 접견

일본 향운협회 쿠보 마사미(久保 昌三) 회장을 비롯한 고베시 대표단 5명이 지난달 28일 우리시를 방문. 한·일 자매도시간 항만 교류 활성화와 양도시간 항만 정보 공유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과 고베시는 지난해 4월 양도시간 경제, 컨벤션, 관광, 항만,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한 상호 자매도시 협정을 맺고 양시간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양시는 항만분야에서 개항장과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양도시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충분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쿠보 마사미 일본 향운협회장 및 고베시 항운 관계자의 인천시 방문으로 양시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일본 향운협회장 일행을 접견한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양시간 항만 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정보와 기술교류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확대가 민간교류까지 이어져 양도시 시민들이 마치 이웃집을 드나들 듯이 자유로운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5002



주민 주도 비즈니스 창출 ‘마을기업’ 선정

우리시는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항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인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올해는 약 25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2월 11일까지 각 군·구를 통해 참여단체 선정을 위해 일제히 공모에 들어갔다.

신청자격은 지역주민모임, 마을회, 부녀회, 봉사회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이며, 대상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리더양성·경영컨설팅 등 자발적 중간조직 육성사업이다.

마을기업 참여단체는 각 군·구를 통해 응모한 단체를 대상으로 각 군·구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우리시에 추천하며, 2월 말에 마을기업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하여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12개월 동안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참여단체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며, 사업추진 여하에 따라 내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시에서는 전문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90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확정

현 정부의 국토관리 철학인 광역경제권(5+2)전략, 녹색성장전략 등의 비전 수용과 세종시 발전안 확정, 시·도 계획에서 7개권역 계획으로의 국토공간 변화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이 국무회의, 대통령승인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27일 확정고시됐다.

이날 확정된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설정했으며 특히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간선 도로망 잇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포함하여 서해경제 대동맥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과 인천을 중심으로 서산·당진 등 충청권에 서 북한의 개성·해주까지 도로망을 구축해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한다는 우리시의 핵심 아젠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업무거점을 형성하거나 인천공항·인천항에 물류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노후된 항만·공업지역을 신개념 복합산업단지로 재개발한다는 방향도 포함돼 경제수도 인천 건설이 힘을 얻게 됐다. 또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수도권 물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돼 경인고속도로가 담당하는 인천항 물동량 수송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440-4613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 설치

우리시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철 산불방지 기간을 맞아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이 기간 분청과 군·구·사업소 12곳 등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무속인이 자주드나들고 어린이 불장난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골라 특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산지와 가까운 시설에 대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소각금지기간을 정해 인화물질에 대한 관리,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다음달 말까지 읍·면·동장 확인후 실시토록 하고 산림인화물질이 있는 지역은 공동소각날을 지정키로 했다.

시는 이어 2월까지 기존 산불감시 시설에 대한 정비작업을 벌이고 장비를 추가 구입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인천지역에서는 10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72.63ha가 불에 타고 1억8천5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8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전면 백지화 촉구

인천시의회가 고용노동부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과 관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방침에 대해 1월 말 열렸던 제190회 임시회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인천시의회 전원기 의원 등 시의원 21명은 지난달 4일 '중부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1965년 설치돼 45년간 인천지역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중부고용노동청을 경기도로 옮기는데 반대하고 고용노동부가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부고용노동청을 경기도로 이전하려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행정수요와 미래 노동행정 수요 등 인천지역 노동수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은 향후 대 중국 수출의 첨단기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인천의 특성을 감안한 노동수요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중부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중부고용노동청 관할 수원지청 등 모두 8개의 지청과 16개의 고용센터가 설치돼 노동수요를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인천은 향후 대 중국 수출 첨단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노동집약형 대도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부고용노동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전원기 의원은 "중부고용노동청 이전은 인천시민과 지역 기업체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부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릴레이 간담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소관하는 8개 부서 기관의 장, 임원 등과 오찬·만찬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시의회 건교위는 지난 1월 24일 종합건설본부를 시작으로 2월 17일 인천메트로까지 8개 부서·기관과 간담회를 연다. 이밖에도 언론사 오찬간담회(25일), 시의회 의장 오찬간담회(26일)를 했다. 건교위가 피감부서·기관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는 계획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지만, 건교위와 간담회를 가진 부서·기관 직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최근 건교위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건교위원들이 과거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구태를 보이지 않았고, (각 부서·기관의) 애로사항과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듣는 자리였다"며 "의회 공식석상에서 하기 힘든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랑나눔 장학생 초청 장학증서 전달

인천시의회(의장 김기신)는 지난해 12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사랑나눔 장학생들을 초청하여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나눔 장학회'는 인천시의원 일동(38명)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모금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불우한 역경을 딛고 인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눔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 장학회는 13명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6백8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장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기반 비용이나 대학진학시 등록금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구제역 상황실 방문, 방역관계자 격려

인천시의회 김기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지역구의원과 시의회 사무처장 및 관계관 등 20여 명은 1월 20일 지난해 발생하여 전국을 강타하고 인천시 강화, 서구, 계양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 관련 방역 및 차단에 고생이 많은 피해기관 종합상황실 및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맞이 소래산 산행

인천시의회(의장 김기신)는 지난 1월 8일(토)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의 화합과 의정발전 도모를 위해 소래산으로 산행을 했다.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소래산 정상에 올라 2011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 복지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과 아울러 시의회의 다짐에 대한 구호 제창을 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인천시의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인천아시아경기특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범(문북,계양3)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영태(교육)·박순남(비례) 의원을 각각 제1간사, 제2간사로 선출했다.

인천아시아경기특위는 2014년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과정의 제반 문제를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기 위한 활동을 2011년 12월 22일까지 12개월간 한다. 도로와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적기 지원 및 숙박시설 확보, 교통망 확충,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사항 점검과 합리적인 방안 등을 강구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범 의원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대회 준비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위위원들과 활발하게 활동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특위원회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했다. 특위는 지난 1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4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부터 경기장 건설 및 확보 방안, 선수촌·미디어촌 건립 준비상황,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는 대회준비 운영계획 수립, 개·폐회식 준비 추진 등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

상임위원회 탐방 ② 기획행정위원회

시민 편익에 ‘올인’



인천시의 시정기획, 자치행정, 국제협력, 홍보, 소방방재와 관련된 부서의 주요 정책의 감독·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제6대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올해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의정방향은 시민의 편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지방자치의 주민의 참여를 통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펼치며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구하며 일하는 밝고 활기찬 위원회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활발한 토론회와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고품격 의정활동에 박차를

를 가하고 있다. 시의 올바른 주요정책에 대해선 힘을 보태고, 더 나아가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추진해 나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시 조직의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인천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올해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성공적 추진 방향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학력 향상과 공교육의 내실화에 위원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기울일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위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특히 열정에 찬 젊은이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민생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민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어려움과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 의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본위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 활동으로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인터뷰 _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



“무상급식 실현 뒷받침 할터”

“2011년도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원년으로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된 뜨거운 논란이 있었지만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로써 인천이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안정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뒷받침하겠습니다.”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계양 2선거구)은 올해 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시 집행부의 주요 정책사항 점검과 지원으로 삼았다.

홍 위원장은 시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의 중지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의안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심의하고자, 지난 6개월 동안 무상급식 토론회 등 총 6회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의회에 토론회가 정착하는데 일조했다. 올해도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와의 토론을 준비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의 다짐을 통해 소통이 정착하는 선임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클릭! 시의원 _ 이도형 의원(건설교통위)

“주민 만나는 현장에 한걸음 더”

‘효성동의 이도형’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이도형 의원(36, 계양1). 인천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제6대 시의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나이는 젊지만 풍부한 정책역량을 갖추고 있다.

지난 6년간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쌓은 내공을 시의원을 하면서 하나둘씩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정책적 역량은 ‘2010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2010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지방선거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입증된 바 있다. 쉽고 실천가능한 좋은 공약구성은 이의원의 철학과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상을 받고 나니 젊은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런 기우가 싹 사라졌다.

이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평소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지만 더 많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재기발랄한 ‘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좀 딱딱해 보이는 홈페이지 보다는 젊은 감각을 동원한 ‘카페’에 의정활동 내용은 물론 지역주민 상담, 댓글달기 등을 직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의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서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지역현안도 해결하고 마음이 따뜻한 시의원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초창기 다이얼 전화기



19C말 20C초 모르스전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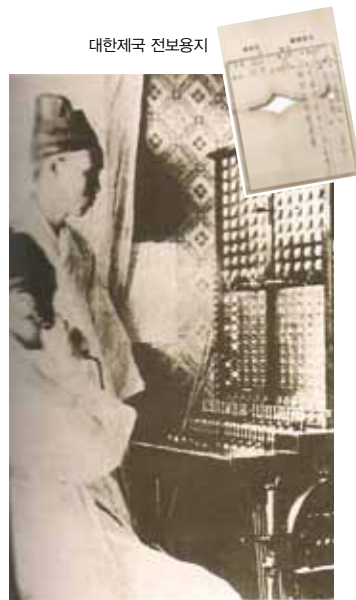


생활의 발견 ‘다리퐁’

글 조우성 시인,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그 옛날, 관에서 소식을 전하자면 파발꾼을 보냈다. 인천에서 서울을 가자해도 단 시간에 가 닿을 수 없는 고단한 일이었다. 인천감리서(지금의 인천시청)에서 조정에 보고하는 일조차 그랬으니, 민간에서 사사롭게 기별하는 일은 더 만만치 않았다. 그와 같은 역참제를 폐지하고 백성들도 자유롭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84년 11월 17일이었다. 서울과 인천에 우정총국과 분국을 동시에 설치하고, 근대 우편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해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우정국이 폐쇄되었고, 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은 대역죄로 처형되는 불운을 맞았다. 이 사건은 전신 매체의 도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 주문해 놓은 전신기 구입이 그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이듬해인 1885년 7월, 청나라가 인천~서울~평양~의주에 이르는 ‘서로전선(西路電線)’을 가설하자, 조선정부는 서둘러 한성전보국을 설치하고, 10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 업무를 경인간에서 개시했다.

이 무렵 한글의 모르스 부호화가 이루어졌고, 1888년에 비로소 ‘전보장정(電報章程·인천개항박물관 소장)’이 제정, 반포되었다. 그러나 전신이 식민 침탈의 도구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백성들은 “전보를 통해 전염병이 나뉜다.”며 시설들을 파괴하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전화는 호의적이었다. 기록상 전화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82년 3월이었는데 청국 유학생 상운(尙濤)이 귀국하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갖고 들어온 2대가 그것이었다. 당시 전화기는 ‘다리퐁’이라 불렀는데,



초창기 전화교환원
지금과 달리 남자가 교환 업무를 했다.



19C 말
벽걸이 자석식 전화기

1950년대
군용휴대용 전화기

1950년 이후
고급전화기

금성사
최초 다이얼 전화기

이는 영어 ‘텔레폰’에서 음만을 취한 중국식 가차명(假借名)이었다. 나중에는 ‘말을 전하는 퐁’이라는 뜻으로 어화통(語話筒) 혹은 전어기(傳語機)라고도 불렀다.

‘다리퐁’이 정식 도입된 것은 그 한참 뒤인 1894년 1월이었다. 궁내부(宮內府)에 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일본에서 기기와 운용 시설을 들여왔다. 그해 3월 1일, 한성전보총국이 전화기 시험과 그를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어 참관자들의 탄성을 자아냈지만, 전화 가설은 어수선했던 정세로 실현되지 않았다. 전화가 개통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였다. “대궐 안에서 각 부로 전화기를 연결하였는데, 아이들이 종이연을 날리다가 자꾸 연줄이 전화기 줄에 얽혀 전화가 잘못되는 고로 경무청에서 각 교번소에 신칙하여 아이들의 연날리기를 엄금한다 하더라.” 독립신문 1898년 1월 8일자 보도 이전에는 전화에 관한 일체의 보도나 관보의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울~인천간의 전화는 1898년 초에 개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전하는 ‘백범 선생의 전화 구명설(求命說)’은 착오로 보인다. 창원대 사학과 도진순 교수에 의하면, ‘병신년 8월 26일’은 ‘1896년 10월 2일’(양력)로 그날 법부가 인천감리서에 전보를 보내 백범의 사형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경인간에 전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 2년 뒤인 1898년이었고, 민간에서는 1902년 3월부터 통화를 시작

했다. 이로써 인천은 관용, 공중용 전화를 최초로 가설한 통신사업의 시발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 후 전신은 이메일 보급 등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반면 전화는 눈부신 변천을 거듭해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서비스를 인천에서 시작해 시발지로서의 전통을 화려하게 계승했다. 그러나 그 사용법은 옛날만 못한 듯싶어 안타깝다. “상투를 단정히 고쳐 세우고 두 손을 맞잡아 머리 위에 쳐드는 읊(揖)을 하고서 전화를 돌렸다. 상대방이 나오면 자신의 직함과 성명을 다 말하고, 상대 부서의 장과 부모의 안부까지 묻고서 안건을 말했다.(이규태 코너)”는 초창기 ‘전화 도덕’에 비하면, 문자 공세, 초상권 침해, 금융사기 등으로 오늘의 물골은 부끄럽다. 그 옛날처럼 통화 중 상소리를 하거나 거친 말 다툼이라도 벌이면 교환수가 나서서 통화를 정지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전화도덕 회복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듯싶다.

참고 자료 : 한국의 전기 통신(한국통신), 한국 최초, 인천 최고(인천광역시), 간추린 인천사(오종원 외), 전화의 역사(강준만), 이것이 한국 최초(김은신), 주해 백범일지(도진순), 인천이야기(100장면(조우성), 독립신문, 조선일보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옛 전화기의 실제 모습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3천원, 학생 2천원. 문의 764-1988

인천은 ‘우리집’, 인천사람은 ‘내 이웃’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이라는 가장 멋진 도시에 살고 있는 것도 이유다.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복 받은 사람인데 거기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바로 가르치는 일이다. 나는 가르치는 일이 좋다. 학생들이 성장하고 세상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내 수업을 통해 그들의 꿈과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경인여자대학교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학생들은 그들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 역시 책임을 다하고 있다. 7년 전 인천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한번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았다. 인천이 우리집이고, 학생들은 내 이웃이다. 우리 가족과 학생들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잘하고 싶다. 학교가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인천으로 오게 됐지만, 인천이 캐나다의 내 집처럼 푸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천에서의 삶에 후회는 없다.

학원선생으로 시작해 영종도 신도시에서 3년간 살았다.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떠날 때엔 거리에서 여러 명을 마주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으며, 모두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지금도 내가 살던 곳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 현재는 부평에 살고 있고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친한 친구들이 내가 사는 건물에 살고 있고 자주 가는 레스토랑과 상점의 사람들과도 인사하고 지낼 정도로 친하다. 전화 한 통화로도 나를 도와 줄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인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경인여자대학이다. 사람들은 나를 외국인이라기보다 아끼는 친구로 대해준다. 학생들은 행복해하며 열심히 공부한다. 경인여대 캠퍼스에 오면 서울의 여느 대학 못지않은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캠퍼스의 자유와 낭만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

또 내가 좋아하는 다른 장소는 문학경기장이다. 인천유나이티드와 와이번스의 팬들은 나를 외국인으로 대하지 않고 스포츠구단을 좋아하는 같은 팬으로 대해준다. 축구경기를 보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다. 인천에서 많은 친구를 만나고 또 마음을 열었기에 인천이 우리집처럼 편안하며 가끔은 나도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곤한다. 나는 인천이 좋다.



글 브레들리 엘리스(캐나다, 경인여대 교수)



고난을 예술로 승화한 ‘그림의 시인’



글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내 집은 내 날개다’

노은님은 순박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모험심이 강한 한국여성이었으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독일에 갔다. 그러다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작가로 활동했지만 낮이면 어김없이 병원에서 외국인 간호보조원으로 일해야 했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천형과도 같은 고단한 날들을 견디고 결국 특별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깊은 밤, 무겁고 긴 꿈에서 깨어나 침대에 걸터앉아 정신을 가다듬던 노은님은 알게 되었다. 한국을 떠나온 후 항상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어둡고 거대한 벽이 어느 새 자신의 등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형과도 같은 그녀의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과 험한 노동이 바로 자신을 날게 한 날개였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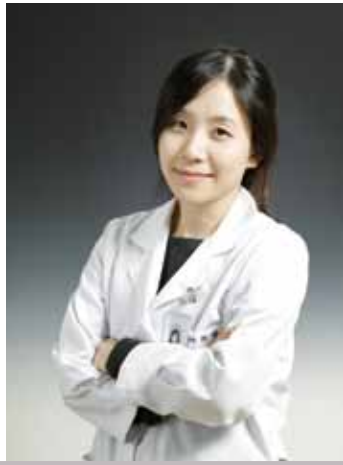
1970년 파독간호사로 한국을 떠나 화가가 된 노은님(Eun Niim Ro 1946~). 그녀는 전주에서 딸이 여덟이나 되는 딸부자 집 아홉 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아이들을 희망으로 알고 살아가던 부모님 슬하에서 넉넉치는 않아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단란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여고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업까지 여의치 않아 그는 간호보조교육을 받고 포천군 면사무소에서 결핵관리요원이 되었다.

그러던 중 1970년 우연히 접한 파독 간호보조원 모집공고를 보고 단지 비행기가 타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독일로 떠났다. 그러나 동양의 스물다섯 처녀에게 먼 이국땅에서의 간호원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타국에서 행여 길을 잃을 세라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고, 남들이 싫어하는 병원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까지 혼자 도맡아했다. 본인 스스로 ‘천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날이었다.

간호사로 생활한 지 2년이 훌러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그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발견했다. 고향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문구점에서 사온 붓과 물감으로 관광엽서를 보고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노은님은 지독한 독감에 걸려 앓아누웠다. 그리고 이튿날 병문안을 위해 집으로 찾아온 간호장이 그녀 방에 가득 쌓인 그림들을 보게 되었다. 그 후 간호장은 병원에서 ‘여가를 위한 그림’이란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함부르크 국립조형예술대학 교수에게 발견되어 이듬해 함부르크 국립조형예술대학에 학생으로 입학했다. 밤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낮에는 미술학도로 꿈을 키우는 나날이었다. 1986년에는 백남준의 주선으로 백남준, 요셉 보이스와 같은 세기의 거장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전시’에 참가했다. 백남준은 한국 사람들에게 “독일에 그림 잘 그리는 여자가 있다”고 소개했고 그 뒤 한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은님의 그림에는 물고기, 나비, 사람, 하늘, 새와 같은 것들이 캔버스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는다. 그는 매우 단순하고 천진한 동화 같은 그림을 그린다. 독일 사람들은 노은님을 ‘그림의 시인’ 이라고 부르며 동양적 감성을 독일식 표현주의로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모교인 함부르크 국립조형예술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독일 국립대학에서는 10년에 한 명쯤 교수를 뽑는다고 한다.

아삭아삭~ 씹는 즐거움 100세까지



글 하강희 인천의료원 치과과장

소아의 구강관리

유치는 생후 6개월 경에 나기 시작하며 만 2~3세 경에 유치열이 완성된다. 이때는 '우유병 우식증'을 주의해야 한다. 우식증을 방지하기 위해 자는 동안 우유병을 물고 자는 습관을 없애고, 젖은 거즈를 이용해 입과 치아를 부드럽게 닦아 준다. 5세 이상의 아이는 3~6개월에 한번씩 불소 도포를 여러 번 해주어야 한다. 불소는 치아 구조를 치밀하게 해 강도를 높이고 충치 유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유치는 때가 되면 빠지고 영구치로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에 관리를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이때 치아에 충치가 많이 생기면 영구치가 나는 공간이 소실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세가 되면 충치 예방에 효과가 높은 홈메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임신기의 구강관리

임신기는 호르몬의 증가로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다. 가장 흔한 것이 임신성 치은염인데, 임신 1기에 흔하게 나타나며 붓고 피가 잘 나고 붉은 색의 잇몸으로 변한다. 이때 중증의 치주질환이 생기면 조산을 일으킬 수 있고 저체중아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구강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중년기의 구강관리

중년기 대부분의 구강 질환은 잇몸병인 치주 질환이다. 평소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구강위생관리가 소홀해지면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는 증상이 반복되고 심하면 고름까지 난다. 치주질환의 주원인은 치태와 치석으로 일단 치석이 생기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만약 방치하여 잇몸 아래까지 치석이 생기면 잇몸 뼈가 녹는 소위 풍치가 생긴다.

전신질환과 치주질환

빈혈, 동맥경화 등 혈액성 장애와 당뇨병 등 전신질환은 치주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잇몸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구강 위생에 신경써야 한다. 구강 내에서는 세균이 상주하므로 식사 후 수분 내에 치아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진행된 잇몸병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힘들므로 잇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한 치아 유지하기

바른 칫솔질은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고 치실을 사용해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닦는 것이다. 또 혀에 남아 있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혀도 함께 닦아주며, 영양가가 높은 음식과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치료를 받으며 치아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치아관리 십계명

- ① 식사 후 바로 이를 닦는다. ② 이를 닦을 때는 치아면 외에도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잘 닦아낸다. ③ 치실과 치간 칫솔(치아 사이가 넓은 경우) 사용을 습관화 한다. ④ 충치예방을 위해 단 음식을 적게 먹고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한다. 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피해 치아의 마모나 파절을 막고 치아에 힘을 무리하게 주지 않는다. ⑥ 유치를 잘 관리해 부정교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흡연은 치아착색과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간다. ⑧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치과에 내원해 스케일링과 검사를 받는다. ⑨ 치아의 상실은 영양의 손실을 부르므로 항상 치아의 소중함을 생각한다. ⑩ 치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치아 건강에 항상 관심을 갖는다.



인증 혜택

이철수 관화기념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예쁜 착한가게 인증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경제적 혜택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 10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혜택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기사(www.chest.or.kr) 1주 1만명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게시해 드립니다.

- 뉴스레터, 정기간행물에 게시 사랑의열매 정기소식 인내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드립니다.

지역신문홍보



모금함 혜택

필요한 가게에는 예쁜 모금함을 드립니다.



신청문의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032-456-3311~4

서구청소년수련관 ‘제2기 동유럽원정대’ 동유럽 폴란드 신문<gazeta> 등재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한 ‘글로벌 청소년 인재양성 프로젝트’ 제2기 동유럽원정대 활동 상황이 동유럽 폴란드 크라카우의 <gazeta wyborcza> 신문에 기재됐다. 신문은 인천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24명이 폴란드 존 레논 벽에 ‘독도는 우리땅 알리기’를 위한 벽화작업과 중앙시장 광장에서 현지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인이 알아야 할 ‘글로벌 에티켓’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11년에 운영 할 제3기 서유럽원정대(여름방학) 및 제4기 동유럽원정대(겨울방학) 또한 특색있는 두 가지의 미션수행과 함께 다양한 세계문화유산과 박물관 탐방을 예정하고 있다. 문의 : 577-7979

원화전시회, ‘영이의 비닐우산’

- 미추홀도서관에서는 재미있는 그림책 원화를 감상하면서 책을 읽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배우는 전시회가 열린다.
- 기 간 : 2월 14일(월) ~ 2월 28일(월)
 - 장 소 : 미추홀도서관 로비(1층)
 - 대 상 : 전체
 - 내 용 : 비닐 우산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는 시간
 - 원화개요 : 영이의 비닐우산 총 21점 전시
윤동재 저, 김재홍 그림 / 창비, 2005
 - 문 의 : 440-6662, 6665

2011년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절반으로 안전한국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밝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을 공모한다.
- 모집분야 : 표어·포스터(어린이, 청소년, 일반)·동영상
 - 응모주제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에 도움이 되는 주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 contest.rota.or.kr
 - 총 상 금 : 2천95만원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왕십리길 160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공모전 담당자앞
 - 문 의 : 830-6162



그린 텃밭 공간조성 시범사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텃밭 공간조성 시범사업 참여 시설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16개소 모집한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도 시농업분야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그린 텃밭 공간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8개구 소재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조성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시설 내 유휴공간에 플랜트박스를 설치해 각종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더불어 그린 텃밭 공간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은 어린이농부교실 운영 사업이 병행 실시된다.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인천관내 8개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건물과 땅을 소유한 시설로 시설 내에 텃밭을 설치할 공간이 있으면 된다. 문의 : 440-6924~26



고인돌 천연염색문화관 제2기수강생 모집

- 강화고인돌 천연염색문화관에서는 제2기 천연염색 지도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 회원을 모집한다.
- 교육대상 : 천연염색에 관심이 있는 분
천연염색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분
 - 교육내용 : 천연염색의 기초와 원리에 대한 이론 및 실기
 - 교육강사 : 홍루까(하늘물빛 전통천연염색 연구소)
 - 교육시간 : 3월 4일~5월 27일(12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30분(2시간 30분)
 - 수강료 : 무료교육(재료비 별도)
 - 접수마감 : 2월 28일(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 교육장소 : 인천 강화군 하점면 고인돌 직물 천연염색문화관 (고인돌 공원 옆)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인천협력기관
 - 문의 : 932-2684, 010-9940-8649
cafe.naver.com/goindol2684
(네이버카페 : 강화고인돌 천연염색 문화관)

화수청소년문화의집 봄맞이 프로그램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봄을 맞아 3월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 : ☎ 762-7642 www.dreamyouth.kr

프로그램명	일 시	대 상	접수일	접수방법	수강료
성인요가 (초급)	화·목 11:00~11:50	성인	3월 2일 개강	전화 및 방문접수	10,000 (환급)
성인요가 (중급)	수·금 11:00~11:50	성인	3월 3일 개강	전화 및 방문접수	10,000 (환급)
우리아이 음악심리	금 17:00~18:50	7세~10세	3월 4일 개강	전화 및 방문접수	90,000
초등 리듬 줄넘기	수·금 16:00~17:50	8세~10세	3월 3일 개강	전화 및 방문접수	10,000 (환급)
생각하는 초등가베	화 17:00~18:50	8세~10세	3월 2일 개강	전화 및 방문접수	60,000
창의 스타터	화 16:00~16:50	5세~7세	3월 2일 개강	전화 및 방문접수	60,000
아동 미술교실	수·금 16:00~16:50	5세~7세	3월 3일 개강	전화 및 방문접수	72,000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 주한 외교사절과 함께 하는正月대보름 민속놀이 행사가 열린다.
- 행사일시 : 2월 17일(토) 10:00~18:00
 - 민속공연 : 취타대, 모듬북 협연, 국악관현악, 배비장전 등
 - 일반시민참여마당 : 연날리기, 제기차기, 떡메치기, 윷놀이 투호, 줄다리기 등
 - 장 소 : 도호부청사 동헌마당
 - 주 관 : (사)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
 - 문 의 : 440-4033, 433-4455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직통전화 개통

- 국민건강보험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직통전화를 개통하여 신고 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신고 직통 전화번호 : 02-390-2008
 - ※ 본 전화는 신고 전용 전화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이외의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 상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09:00~18:00)
 - 전화연결 시스템
 - 신고 전용 전화는 ①번 누름 ➡ 본부 담당자 직접 연결
 - 그 외 업무는 ②번 누름 ➡ 건강보험공단 서울 고객센터 연결
 - 상담서비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관련 안내 및 내용 접수
 - 신고 접수건 처리 절차
 - 문 의 : 02-3270-6804~6



인천대학교 제물포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 인천대학교 제물포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 입주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의 중소기업
 - 입주제한 : 금융실패불량자 또는 체납자, 오염물질 배출업체
 - 입주신청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1부(www.uibi.or.kr에서 제물포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로 이동 후 입주안내 메뉴에서 입주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창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주주명부 함께 제출)
 - 서류접수처
 - 우편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8-3번지 인천대 제물포창업보육센터 행정실
 - 이메일 : didqocn82@incheon.ac.kr
 - 입주공간 및 부담금 현황
 - 입주실 규모

입주실 크기	23㎡(7평)	36㎡(11평)	44㎡(13평)	72㎡(22평)
대부료(1년)	1,559,400원	2,295,000원	2,983,200원	4,590,000원
- ※대부료는 1년치 선납이며 임대보증금은 없음. 단, 전기세 등은 실비납부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안내에서 입주부담금 참조
- 문의 : 835-9666, 4913

19개 무료특별기획강좌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이번 학기에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9개 '무료특별기획강좌'와 신나고 활기찬 '야외수업' 등 실속 있고 다채로운 강좌를 준비했다.

- 강좌기간 : 3월 2일 ~ 5월 24일(3개월)
- 접수기간 : 1월 31일 ~ 3월 5일
- 장 소 :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 대 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문의전화 : 765-0220, 0250 홈페이지 www.mchart.co.kr

무료 강좌(3개월 과정)

◎ 어린이

- 혼자하는 첫 유아미술(아동미술전문가 지순애)
- 멋지고 신나는 요들나라(인천예총 미추홀 어린이 요들단장 김진구)

◎ 청소년

- 초등영어회화-Fun Fun Activity(영어전문강사 전이주)
- 청소년재즈댄스(어린이재즈댄스전문강사 현혜미)
- 어린이 한자교실 초급반(한자자격검정 전문강사 최종영)

◎ 성 인

- 서예초급(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최종영)
- 한글서예(국전초대작가 이순례)
- 주부 연극 & 뮤지컬(인천시립대 연기예술학과 강사 임기원)
- 몸매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인발레(인천무용아카데미 안지영)
- 명상치유(셀프힐링코치센터 조예원)
-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인천대 객원교수 김준기)
- 디카! 필카! 사진 촬영(인천사진협회장 조만년)
- 일어 회화(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신혜숙)



- 한국무용(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박영숙)
- 캐리커처(캐리커처 작가 양수현)
- 슬림미즈밸리댄스(밸리댄스 전문강사 공병순)
- 목요일플롯(플롯전문강사 박현희)
- 색소폰(색소폰전문강사 김하루)
- 홈스케이치(홈스케이치전문연구원 조진희)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명사무료특강

- 강좌명 : 학부모를 위한 우리자녀 자기주도학습법 이해하기
- 강 사 : 스티디 맵 노혜림
- 일 시 : 3월 11일(금) 10:30~12:00
- 장 소 : 미추홀문화회관 410호
- 대 상 : 자녀를 둔 학부모
- 내 용 : 1) 자기주도학습법이란? 2) 성격, 재능, 집중력 이해하기

신나고 활기찬 야외수업

- 강좌명 : 어린이 골프교실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 레슨비 : 3개월 15만원
- 일 시 : 화·목·토(주3회) 08:00~21:00사이 개별레슨
- 문 의 : 765-0250

2011년 연중캠페인 '사람世上을 만듭니다. OBS'



OBS경인 TV는 대한민국 수도권권의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아날로그 CH4, CH 21 / 디지털(HD) CH8

홈페이지 www.obs.co.kr , 스마트폰(iPhone) OBS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역(인천)	아날로그	디지털
케이블 TV	남동구, 서구, 용진구, 동구, 강화, 중구	3번	8번 / 13번
	계양구, 부평구	15번	17번
	남구, 연수구	17번	17번
스카이라이프HD	HD가입자에 한해 시청 가능	4번	

OBS Program



아름다운 이야기 <보석상자>

매주 목요일 밤11시5분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오기 마련. 한 때 잘 나가던 개그맨에서 망막색소변성증(RP)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개그맨 '이동우'가 OBS 아름다운 이야기 <보석상자> 메인 MC로 출연한다.



OBS창사3주년 특별기획 희망프로젝트 <아시아의 소원>

매주 월~금요일 밤9시5분
OBS가 창사 3주년을 맞아 50부작 특별 기획 희망프로젝트 <아시아의 소원>을 방송한다. 아시아 8개국 10개 지역에서 희망을 찾아 떠난 150일간의 대장정을 그린 특집 다큐멘터리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2-7 TEL. 670-5000 www.obs.co.kr

2011학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친서민정책 중 하나인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을 운영한다.

- 신청기간 : 1월 7일(금) ~ 3월 30일(수)
-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금리 : 4.9%
- 대출자격 : 만 35세 이하의 가계 소득분위 1~7분위 학부생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 무관)
- 지원한도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신용기준 : 없음
- 상환방법 : 졸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만원리금 상환
- 문의 : 1666-5114 www.kosaf.go.kr

'마음 건강' 사진·글짓기 공모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우울, 왕따, 학교부적응, 자살생각 등 마음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음의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경험했거나 극복한 경험 이 있다면, 마음의 문제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보자.

- 참여 대상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은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 기간
1월 20일(목) ~ 2월 28일(월)
- 접수 방법
1)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작품과 함께 제출
2) 우편접수 : 406-13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 1동 산 29-1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 앞
3) E-mail : incheonjb@hanmail.net
(제목에 "공모전 접수" 명시)
- 문 의 : 070-7124-0283~4



여성복지관 상담실 운영

인천시 여성복지관상담실에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 ◎ 종합상담
 - 상담내용 : 가족·신상·이혼·가정폭력·아동·정신건강문제 등
- 가족상담실 : 여성복지관 내 ☎ 434-6436~7, 1577-7830
- 부평 가족상담실 :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내 ☎ 522-0154, 1577-7830
- 사이버상담 : women-center.incheon.go.kr →여성상담→사이버상담
- 변호사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14:00~16:00 (사전 예약)
- ◎ 심리검사 : 성격유형 검사(MBTI), 다면적인성검사(MMPI), 지능검사(WAIS), 그림검사(HTP), 문장완성검사(SCT), 우울증검사(BDI),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선별검사(ADHD), 자아존중감 검사, 부모양육태도 검사 등
- 임상심리전문가 심리검사 : 매주 월요일 14:00~18:00(사전 예약)

◎ 가족방문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신청자 모집

- 대 상 : 부부갈등, 자녀문제, 가정폭력, 알콜중독, 우울증 등의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소득 가족
- ※ 무상보육 지원 해당 가족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 월 450만원 이하)
- 방 법
- 가족방문상담 : 전문상담원 방문상담(1가족 · 5회)
- 가족치료 : 전문가 가족심리치료 · 표현미술치료(1가족 · 10회)
- 내 용 : 가족문제 해결 방안 제시 및 가족기능 강화
- 문 의 : 434-6436~7, 434-0182

2012년도 개교예정 학교 교명 공모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12년 개교예정인 학교의 교명을 공모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기 간 : 1월 26일(수)~2월 18일(금)
- 자 격 : 누구나 참여 가능(타 시·도 주민 포함)
- 제출서류 : 교명 공모 신청서
- 교명 선정 방향
 - ① 인천의 미래 교육의 위상과 교육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이름
 - ②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펼쳐나가는 교육의 장이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이름
 - ③ 현재 인천 관내 및 타 시·도 학교 교명과 중복되거나 비슷하여 혼동이 되지 않는 이름
 - ④ 부르기 쉽고, 한자 또는 우리말로 이루어진 2글자(최대 3글자)의 이름
- 제출방법 : 팩스 420-8188 / 이메일 hhelibe@korea.kr
- 우수 교명 선정 : 3월 중(개별통보 및 시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사진은 남구 관교동에 있는 도호부청사입니다.
도호부청사는 오늘날의 시청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맞춰보세요. 모두 다섯 곳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월호 '틀린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하여 알립니다.

※ 정답을 다섯 곳으로 공지하였으나, 여섯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섯 곳, 여섯 곳 기재하신 분 모두 정답처리합니다.



문유희 부평구 산곡3동	차유리 연수구 연수동
박채민 동구 화수동	허선숙 의정부시 신곡동
김현주 남동구 간석2동	최성숙 부평구 갈선2동
김미숙 중구 송월동	이제옥 부평구 갈산동
권혁근 남동구 만수3동	정영자 남구 학익2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천 틀린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틀린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김치 찰작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

직원 단합대회 탁구시합에서 탁구채 대신 양은냄비를 선택한 부장님의 애교작렬 포즈! 양은냄비로 스매싱을 날리던 당신을 탁구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_ 최세영 남동구 구월3동



진정한 레이싱걸

미래의 레이싱걸을 꿈꾸는 우리 딸입니다. 장난감 자동차 앞에서 사진 찍을 준비를 하니, 바로 자세와 표정이 나오네요.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_ 정윤희 남구 문학동



세상도 내 마음도 하얗게 하얗게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공공 얼어버릴 것 같은 겨울이지만 하늘은 선물을 주셨지요. 아이도 어른도 모두 행복하게 하는 하얀 눈.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_ 김원미 동구 송현동

장원

우리는 삼남매

시골집 토방에 누나들과 암전히 앉아 자세를 잡아보지만, 방금까지 뛰놀다 널브러진 신발은 우리의 장난끼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누가 이름만 불러도 웃음이 절로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_ 김동하 서구 마전동



안전운전하세요!

언제나 안전운전 꼭 명심하고 지켜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안전운전하려고 미리 연습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물론 설정샷입니다.
_ 송성준 남구 용현동



그리운 28년 전, 그때 그 시절

28년 전 인하대에서 찍은 손녀, 손자의 사진입니다. 손녀는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아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증손녀의 네 번째 생일입니다. 내가 벌써 노할머니가 되었네요.
_ 서경애 연수구 선학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2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셋째 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2011년 1월 1일.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소중한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았다.

슬하에 세 살, 여섯 살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임형준, 손미경 부부는 새해 새날 건강한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언제 산아제한 정책을 폈냐는 듯 아이가 없거나 하나만 낳는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 이들 부부의 셋째 아 출산은 큰 의미를 시사한다. 우리시도 이 같은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달 27일 임형준, 손미경 부부의 가정을 찾아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출산장려금 전달식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때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다출산 문화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10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오는 2012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시 200만원, 2013년에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2011년에 셋째 아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정으로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아이 출생신고일 60일 이내에 거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시는 이와 함께 셋째 아이 이상 전면 무상교육, 초등학교 무상급식, 3세 이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 접종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풍부한 혜택으로 다가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제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셋째 아 이상 자녀 출산 및 입양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2011년 셋째 아 이상 출산 또는 입양가정 2천160세대

지원금액 : 세대 당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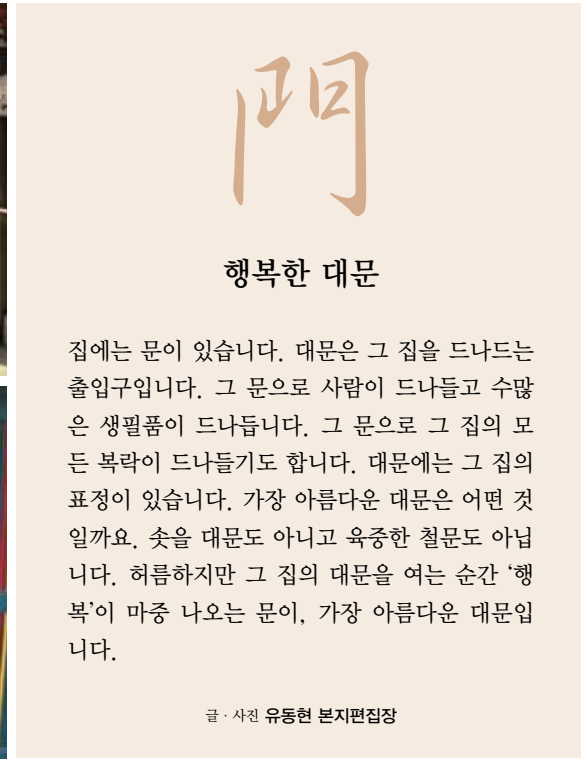
지원기준 :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지원신청 :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2012년 둘째아 200만원, 2013년 첫째아 100만원 등 2013년에 모든 출생아 지원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752

사소한 발견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대문은 그 집을 드나드는 출입구입니다. 그 문으로 사람이 드나들고 수많은 생필품이 드나듭니다. 그 문으로 그 집의 모든 복락이 드나들기도 합니다. 대문에는 그 집의 표정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문은 어떤 것 일까요. 솟을 대문도 아니고 육중한 철문도 아닙니다. 허름하지만 그 집의 대문을 여는 순간 ‘행복’이 마중 나오는 문이, 가장 아름다운 대문입니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